



CONTENTS

- | | |
|---|--|
| <p>01. SPRING</p> <p>FOCUS
02 반려 식물과 함께하는 봄맞이</p> <p>REVIEW
05 또 만나고 싶은 잭슨 폴록과 리 크래스너</p> <p>08 마음이 궁금하면 알사탕을 먹어요: 노원어린이극장 뮤지컬 <알사탕></p> <p>10 친숙한 그림책으로의 낯선 초대</p> <p>12 꽃 피는 산책으로에서 만난 축제의 순간들</p> <p>PLACE
14 노원구 가족센터, 모든 형태의 가족을 응원해요</p> <p>BOOK
17 봄이잖아요. 우리 같이 걸을까요?</p> | <p>03. AUTUMN</p> <p>PLACE
38 드디어 개장한, 서울의 유일한 도심 자연휴양림</p> <p>REVIEW
40 김광석의 노래, 수락산 노을 아래 다시 피어나다</p> <p>43 고독 속에 피어난 다정함, 한국 근현대 거장전을 걷다</p> <p>46 2025 노원 달빛산책, 노원구 대표 가을 축제가 돌아왔다!</p> <p>PLACE
48 아래서 다들 도깨비시장 가는구나?</p> <p>MOVIE
50 가을 타는 당신을 위한 영화 다섯 편</p> |
| <p>02. SUMMER</p> <p>FOCUS
20 밀라노 농담</p> <p>REVIEW
23 창문 넘어 찾아온 오케스트라 선율</p> <p>COLUMN
26 인형극, 내 안의 어린이와 내 옆의 어린이가 만나는 무대</p> <p>PLACE
29 여름 더위와 도시 소음 대신, 나만의 음악 피난처</p> <p>INTERVIEW
32 들어보았나요? 36개월 미만 아기를 위한 연극, 영유아극!</p> <p>BOOK
35 행복을 만들어주는 시인 천상병</p> | <p>04. WINTER</p> <p>FOCUS
52 2025 노원, 무엇이 우리를 움직였을까?</p> <p>ESSAY
54 겨울날의 전래동화, 해동일(解凍日)</p> <p>56 케도에서 이탈한 딸을 부모는 사랑으로 품어주었다</p> <p>PLACE
58 겨울을 함께 할 뜨개 친구, 카페 'TOYO'에서 만들어 가요</p> <p>60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p> <p>INTERVIEW
62 제철 동네를 걷다: 기록이 삶을 바꾸는 순간</p> <p>BOOK
65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p> <p>INTERVIEW
68 노원아띠 기자단의 고백, “우리가 노원에 빠진 이유는요...”</p> |



반려 식물과 함께하는 봄맞이

노원정원지원센터의 식물 돌봄 이야기

창문을 여니 한층 포근해진 공기 속에서 봄기운이 짙어지고 있어요.
길가의 꽃나무마다 하나 둘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연스레 집 안의 화분들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무성하게 자란 잎들이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아무래도 식물들에게 좀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왠지 시들시들해 보이는 친구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졌어요.
오늘은 반려 식물의 상태를 확인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려 해요.

글. 사진. 강혜빈(노원아띠 기자단)

찬바람을 피해 거실로 들여놓았던 식물들을 다시 베란다로 옮길 때 가 됐다. 그간 실내 통풍과 물주기에 신경을 기울였지만, 초보 식집사인 까닭에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 노원구에 '반려식물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볼 좋은 기회였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 사진을 몇 장 챙겨 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노원정원지원센터 반려식물병원 입구

반려식물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이 마르거나 성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엔 번거로운 경우가 많죠. 힘들게 식물을 들고 왔는데 이상이 없으면 다시 가져가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내면 상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불암산 힐링타운에 위치한 노원정원지원센터는 서울 최초로 설립된 정원지원 센터로, 올해 개소 4주년을 맞았다. 기존 불암산 나비정원 내 식물 재배 온실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다. 센터에는 홈 가드닝 샵, 카페, 반려식물학교 등 식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반려식물병원은 식물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중계주공3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센터까지는 도보로 이동했다. 보도블록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완만한 데크길이 이어졌고, 센터에 가까워질수록 불암산의 풍경이 선명해졌다. 외부 화단에는 노란 풍년화가 피어 있었고, 실내에는 다양한 색감의 꽃들이 풍성했다. “날이 포근해졌네요.” 인사를 건네며 실내로 들어서자, 노원정원지원센터 이병희 센터장이 식물들을 들보고 있었다. 그에게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았다.



식물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식물 상태를 진단하고, 차도가 없을 경우 현장 상담을 진행해요. 상담 요청의 80~90%는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해결돼요. 사진과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색, 줄기 상태, 토양의 건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환경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 상황에 맞춘 조언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반려식물학교에서 진행한 수업 작품

상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담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안
내해 드리니까 편하게 요청하시면
돼요. 실내 습도나 일조량에 예민한
식물은 위치만 조금 바꿔도 잎이 떨
어질 수 있어요. 식물이나 관리자의
문제라기보다 환경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온라인 상담으
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반려식물학교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도가드너’, ‘원데이플랜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을 배우고 작
품을 만들어볼 수 있어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아요. ‘행잉 수태볼 호접
란’이나 ‘코케다마’를 만드는 수업은
플랜테리어로 활용하기 좋아 특히
아요.

센터장님
특히 좋아하는 식물이 있다면요?

화려한 꽃보다는 이끼류나 고사리
처럼 수수한 식물을 좋아해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
낌이 좋거든요.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 요즘은 산에서 만나는 나무들
로부터 더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
아요.

식물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스파티필름이나 선인장처
럼 관리가 비교적 쉬운 식물부터 키
우는 게 좋아요. 물은 너무 자주 줘
도, 너무 안 줘도 문제예요. 화분 무
게를 들어보거나 잎 상태를 살피면
서 물 주는 시기를 가늠해 보세요.



인터뷰를 마친 뒤, 가져간 사진을 바탕으로 식물 상담을 받았다. 아프리카 식
물인 아스파라거스를 비롯해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파티필름의 잎 변색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과 몬스테라의 분갈이 시
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식물을 잘 키
우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애정도 한층 깊어졌다.

을봄에는 노원정원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푸르른 식물과 함께라면 남은 봄을 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

노원정원지원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페와 함께 운영되다 보니 접근성
이 좋아요. 카페를 찾은 분들이 자
연스럽게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식물 돌봄 방법
을 제안할 수 있죠. 현재 노원구민
의 약 75%가 센터를 방문하고 있
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길 바
라요.

노원정원지원센터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49
- 하계(3~10월) 10:00~19:00
동계(11~2월) 10:00~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https://www.kguide.kr/nnowongarden>
- 02 2116 0598

또 만나고 싶은 잭슨 폴록과 리 크래스너

<뉴욕의 거장들> 전시를 다녀와서

뉴욕의 거장들이 노원에 왔다.

2025년 1월 조성이 완료된 노원아트뮤지엄 개관을 기념해,

현대미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전시가 마련됐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리 크래스너, 재스퍼 존스, 바넷 뉴먼, 로버트 마더웰, 솔 르윗 등
현대미술의 거장 21인의 작품 35점과 이들의 작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국내 최초로 우리 동네 노원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알·못(미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나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전시다.
이번 전시를 추천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글. 박미경(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박미경



소문이 자자한 <뉴욕의 거장들> 전시를 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도슨트 해설 시간이었다. 평소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찾을 때마다 해설을 듣는 편인데, 미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나에게는 더욱 필요한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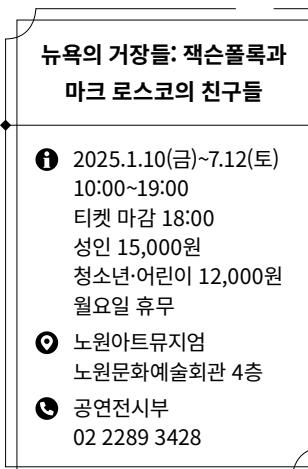
3월 15일(토) 오후 2시, 유재희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뉴욕의 거장들> 관람이 시작됐다. 전시는 총 세 개의 전시실로 구성됐다. 1전시실에서는 추상표현주의를, 2전시실에서는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동시대 작가들을, 3전시실에서는 ‘어반 캔버스: 뉴욕, 추상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그림 감상법의 발견

“그림 전시회에 오면 보통 작가와 작품 설명부터 보게 되죠. 오늘은 설명보다 먼저 작품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추상미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점, 선, 면, 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지 추측해 보시고, 이후에 설명을 읽으면 훨씬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슨트의 말은 실제 관람 경험을 바꿔 놓았다. 사실주의 작품에 익숙한 나에게 추상표현주의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지만, 먼저 작품을 보고 직관에 집중한 뒤 설명을 들으니 훨씬 흥미롭게 다가왔다.

혼자만의 감상이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같은 작품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감상이 오가며, 감상의 폭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잭슨 폴록 작품 앞에서 해설하는 유재희 도슨트

새로운 작가의 발견

잭슨 폴록은 이름만 알고 있던 화가였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됐다. 그보다 더 큰 발견은 리 크래스너였다. 리 크래스너는 잭슨 폴록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리 크래스너는 실력이 뛰어나고 자신만의 화풍이 확립된 화가였지만, 오랫동안 잭슨 폴록의 아내로만 알려졌습니다. 폴록이 큰 명성을 얻으면서 크래스너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한동안 화가의 길을 포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폴록이 세상을 떠난 뒤, 다시 봇을 들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야기는 1940년대 미국 추상표현주의가 가진 한계를 짚어 나갔다. 라이프(LIFE)지에 실린 ‘성난 사람들(The Irascibles)’이라는 사진에는 15명의 대표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등장한다.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이들이 전시에서 배제되자 항의의 의미로 촬영된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여성은 단 한 명뿐이었다. 실력 있는 화가였던 리 크래스너는 그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여성 화가, 유색인종, 동성애자 화가들이 겪어야 했던 배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 전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가려졌던 작가들을 다시 한 명씩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장 다가왔던 리 크래스너의 작품 <무제 Untitled>, 1948



새로운 표현의 발견

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끈 작품 중 하나는 약 2,700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는 잭슨 폴록의 작품이었다. 폴록은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방식 자체가 그의 독창적인 발명은 아니었다.

폴록의 혁신은 작업 방식에 있었다. 기존 화가들이 이젤에 세운 캔버스에 작업 했다면,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신체를 활용해 물감을 흘렸다. 구상한 이미지를 옮겨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느낀 에너지와 감정을 즉흥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화가와 캔버스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변화였다.

폴록을 비롯한 미국의 화가들은 이전 표현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언어를 만들어 갔다. 작품 하나하나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상상력과 실험정신에 감탄이 나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나는 새로운 그림 감상법과 새로운 작가, 그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발견했다. 전시에 대한 흥미가 오디오 가이드로까지 이어졌고, 다시 한번 작품을 찬찬히 바라보게 됐다. (전시장에서는 이어폰 대여를 통해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뉴욕의 거장들> 전시는 관람자에게 분명한 ‘발견의 순간’을 선사한다. 가능하다면 도슨트 해설과 함께 감상하길 권한다.

마음이 궁금하면 알사탕을 먹어요: 노원어린이극장 뮤지컬 <알사탕>

아동문학계 노벨상 수상작이 가족 뮤지컬로 노원에 찾아왔다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다. 물론 아이는 재미있는 것만 보고 싶어 한다.

흔치는 않지만, 좋은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재미가 넘치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노원어린이극장에서 공연 중인 가족 뮤지컬 <알사탕>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마법의 사탕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 동화책이 아닌 뮤지컬로 만나는 경험은 특별했다.

아이에게는 응원을, 부모에게는 감동을 전하는 공연이었다.

노원어린이극장의 다음 공연이 벌써부터 기다려질 정도다.

글. 임주연(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임주연



아침 8시 20분. 눈을 뜬 아이의 첫마디는 “엄마, 나 알사탕 보고 싶어…”였다. 잠꼬대 같은 응얼거림에 의문이 들었다. ‘지금 왜 갑자기 알사탕을?’ 아이의 생각 회로는 전부 다 파악하기 어렵다. 왜 아침부터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사탕이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됐다. 유치원 선생님이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 동화책을 읽어주었다고 한다. 노원구 곳곳에 붙은 공연 플래카드도 아이의 마음을 들뜨게 한 모양이다. 나의 작고 귀여운 스펜지는 노원문화재단이 차려준 영양가 높은 콘텐츠를 쏘옥쏘옥 흡수하고 있었다.

어느새 막이 올랐다. <알사탕>의 주인공 동동이는 혼자 노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새 학기를 맞은 아이에게 동동이는 친구 사귀는 법을 알려주는 좋은 거울이 됐다. 동동이는 혼자 구슬치기를 하다 깨진 구슬을 보고 문방구로 향

한다. 그곳에서 구슬 대신 구슬처럼 생긴 알사탕 한 봉지를 만나게 된다. 평범해 보이던 사탕을 입에 넣자,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알사탕에서는 소파가 말을 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말하는 듯한 소파에 관객들은 너도나도 놀란다. 마법의 사탕을 다 먹자 동동이는 더 이상 소파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다음 알사탕에서는 강아지의 말이, 또 다음 알사탕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린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동동이에게 가방 정리부터 식사 습관까지 잔소리를 늘어놓는 인물이다. 잠들기 전까지 잔소리가 이어진다. 그런데 동동이가 알사탕을 먹자, 아버지에게서 ‘사랑해’라는 글자가 빛줄기처럼 뻗어 나오고 아름다운 노래가 함께 흐른다. 그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다시 눈물이 날 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공연이 끝난 뒤 아이를 한참 동안 꼭 안고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다음 알사탕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따뜻하고 쾌활한 할머니의 말에, 얼마 전 떠나보낸 가족을 떠올리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훔쳤다.

동동이는 씽씽이를 타고 달리다 혼자 보드를 타는 아이를 만난다. 알사탕을 통해 가족의 마음을 전해 들은 동동이는 이제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넨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나랑 같이 놀래?”라고 하지만 상대는 듣지 못한다. 그러나 실패를 겪은 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다.

엄마도 친구도 없이 강아지와 지내는 편부모 가정의 외동아들. 외로움의 배경에는 비어 있는 소파, 무뚝뚝한 아버지, 할머니의 죽음,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 함께 놀아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동동이는 알사탕을 통해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가족의 따뜻함을 알게 되고, 용기를 얻어 소통을 시작한다.

나 역시 <알사탕> 속 무뚝뚝한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에 치여 마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 마음을 정확히 건드린 장면은 오래도록 위안으로 남을 것 같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을 아이와 함께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

이 작품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이유를 자연스레 이해하게 됐다. 6년 연속 판매 1위 가족 뮤지컬을 우리 동네 노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놀라웠다.

아이에게 공연이 어땠는지 묻자 “동동이 아빠가 잔소리가 많더라.”며 와하하 웃었다. 그 잔소리가 사랑이라고 말해주었다. 앞으로 잔소리를 더 해도 될 명분이 생겼다. 노원어린이극장이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더욱 기대된다.



2025 노원어린이극장 공동기획공연 가족 뮤지컬 <알사탕>

● 2025.2.14.(금)~3.3.(월)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60,000원
24개월 이상 관람

● 노원어린이극장
● 공연전시부
02 2289 3451

친숙한 그림책으로의 낯선 초대

노원어린이도서관 그림책 원화 전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펼쳐보았나요?

아주 어렸을 때나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림책 자체가 궁금해져서 그림책을 보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도서관을 거닐다가 작고 예쁜 그림들과 마주쳤습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한쪽 벽에 걸린 그림들은 그림책 속 원화들이었습니다.

그림을 찬찬히 바라보다 보니, 문득 어릴 때처럼 그림책을 펼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알고 보니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림책 원화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도 일부 그림책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글. 김주영(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Newberry Library, Polly Dunbar 홈페이지, 김주영, 노원구립도서관



코메니우스 <세계도회>

간단히 틀어보는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은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사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 그 시작은 동굴 벽화였다. 기원전 1980년경에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등장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삽화 책으로 여겨진다. 교육의 기능을 인식하고 제작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은 아동 중심 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코메니우스(J. A. Comenius, 1592-1670)의 『세계도회』(Orbis Sensualium pictus, 1658)다. 글로만 진행되던 언어 교육이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감각을 활용한 학습을 위해 그림책이라는 형식을 고안했다.

15세기 이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활자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책이 점차 늘어났다. 19세기 말부터는 현대적인 그림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전의 그림책 속 그림이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장식하는 데 그쳤다면, 이 시기부터는 글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맥락이나 은유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림책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페이지마다 입체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팝업북, 동물 소리가 나는 그림책, 다양한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림책 등 형식의 자유도는 크게 확장되었다. 폭력, 죽음, 성, 인간관계처럼 진지하고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림책도 등장했다. 이제 그림책은 사회문화적 주제와 정교한 예술적 스타일, 복잡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Polly Dunbar <Penguin>



전시 담당자는 도서관을 찾는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에게 책의 감동을 전하고자 그림책 원화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 전시가 더 많은 도서를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림책 세계로의 초대

다빈치의 말처럼, 때로는 글보다 그림이 더 깊은 울림을 전한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찾아 그림책의 감성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림책의 기억을 떠올리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그림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나눠보자.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달 도서관 행사와 프로그램, 계절에 맞춰 선정된 다양한 출판사의 아트프린트 형식 원화를 선보인다. 오프라인 전시는 매월 첫 주부터 25일까지 도서관 운영 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시는 전시 기간 중 언제든 감상 가능하다. 날씨가 궂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집에서 충분히 그림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Leonardo da Vinci

인간의 형태와 신체 기관의 모든 면을
글로 표현하려는 그대, 그 생각을 포기하라.
상세히 서술하면 할수록 그대는 독자의 정신을 더욱 가둘 것이다.
서술된 것에 대한 독자의 깨달음을 더 방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서술해야 하는 것이다.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원화 전시

그럼에도 그림책은 결코 어렵지 않다. 글보다 그림에 집중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번 노원어린이도서관 그림책 원화 전시 역시 '그림'에 집중한다. 책장을 넘겨야만 만날 수 있었던 장면들이 벽에 걸린 모습은 색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노원어린이도서관 그림책 전시 담당자인 명지후 사서의 설명을 들어보자.

"유아부터 성인까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그림책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과 연결된 그림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담겨 있어요. 나와 친구, 가족, 그리고 사물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관계와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림과 글뿐 아니라 곳곳에 남겨진 여백을 통해 아이들은 상상을,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며 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46
-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https://www.nowonlib.kr/nowonchild>
- 02 933 7145

꽃 피는 산책로에서 만난 축제의 순간들

가족과 함께 걷는 봄길, 불암산 철쭉제

지난 4월 말,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열린 철쭉제를 다녀왔다. 한낮 기온은 다소 높았지만 따뜻한 햇살 덕분에 축제 현장은 한층 활기찼다. 산책로를 따라 분홍빛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사람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기 좋은 계절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축제 안에 머무는 동안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특별하게 느껴졌다. 지금부터 그 봄날의 풍경을 기록해 본다.

글. 강해빈(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강혜빈



지난 주말,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2025 불암산 철쭉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추위의 영향으로 철쭉 개화 시기가 늦어지며, 축제 일정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입구에 들어선 푸드트럭에는 아이스크림과 츄러스 같은 간식부터 허기를 달랠줄 닭강정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푸드트럭 앞에는 자연스럽게 긴 줄이 이어졌다. 산책로 곳곳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은 편안히 앉아 봄기운을 즐기기에 적당했다.

초록빛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나비정원'을 만나게 된다. 형형색색의 나비 조형물과 꽃들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느껴진다. 사계절 내내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축제 이튿날, 힐링쉼터에서는 개막식을 앞두고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창작 예술 서비스 단체 '서커스 디랩'이 무대에 올랐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옷걸이 같은 소품을 활용한 저글링과 묘기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음악은 점점 경쾌해졌고, 아티스트의 동작은 더욱 화려하고 정교해졌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오랜 연습의 흔적이 느껴져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저글링이 펼쳐질 때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김덕수패 사물놀이가 장식했다. 사물놀이 창시자인 김덕수 명인은 오랜 시간 국내외 무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의 가치를 알린 국악계의 대표적 예술가다. 이날 공연은 무대 위가 아닌 철쭉동산 중앙 데크길에서 시작되어 특별함을 더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팽과리와 북소리에 관람객들은 기대 어린 환호를 보냈다. 무대에 오른 김덕수 명인은 환한 미소로 "하늘이 복을 내린 날이다. 불암산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사물놀이의 첫 곡은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 액운을 풀어내는 '비나리'였다. 흥겨운 장단에 맞춰 "얼쑤, 좋다"라는 추임새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상모를 화려하게 돌리며 장구를 치는 장면에서는 절로 박수와 탄성이 쏟아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은 다양한 타악기가 변화무쌍한 리듬을 이루며 관객들의 흥을 끌어올렸다. 공연 말미, 김덕수 명인이 한 단원에게 마이크를 넘기자 구성진 아리랑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 고유의 흥과 멋에 흡뻑 빠져든 시간이었다.



경사로 초입에 자리한 '노원힐링마켓' 역시 축제의 또 다른 즐길 거리였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수공예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폭넓은 제품을 선보였다. 암화 책갈피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아이와 어른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꽃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철쭉이 전한 봄날의 풍경 속에서 각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특별한 순간을 간직했기를 바란다. 매년 봄이면 다시 피어나는 철쭉처럼, 이 축제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5 불암산 철쭉제

- 2025.4.18.(금)~4.29.(화)
누구나 참여 가능
- 불암산 힐링타운
- 노원구청 문화도시과
02 2116 0545

노원구 가족센터, 모든 형태의 가족을 응원해요

공릉동 노원구 가족센터 탐방기



가족이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를 뜻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형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핵가족이나 대가족을 의미했죠.

이제는 1인 가구, 비혼, 동거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팻팸족(Pet+Family+族)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해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여러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행복한 삶을 돋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공릉동에 위치한 노원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글. 이미령(노원아띠 PM) 사진. 노원구가족센터, 이미령

노원구 가족센터는 2009년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했다.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치며 가족 센터로 자리 잡았다. 2024년에는 가족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서울가족사업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기준 3단계에서 5단계로 확장해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 덕분이다. 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쉽지 않을 성과다.

공릉역 3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센터는 입구와 게시판부터 분주했다. 빼곡한 사업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는 이곳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짐작하게 했다. 평일 오후 5시에도 오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이용 방법을 문의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다음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청소년들도 여럿이었다. 모두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은 현재 전체 이용자의 7할에 달한다. 다문화가정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지역 내에서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형태도 변화하여 재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에 따라 재혼 후 고국에 두고 온 자녀가 입양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도입국자녀'의 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 담당 가족사업3팀 유해리 대리

아이들이 낯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기반을 다지는 단계인 만큼 센터에서도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학교 진학 전 기초학습 지원은 기본이다. 이 중언어를 구사하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하고,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해낼 수 있도록 자녀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스포츠와 기자단 활동을 지원한다. 물론 센터가 다문화가정만을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1인 가족 비중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치구별로 1인 가구 특화 센터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죠. 저희 센터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가족사업1팀 하선아 대리



다문화자녀 기초학습지원 참여자들



1인 가구 독립생활능력프로그램 가드닝 참여자들





이곳의 교육은 대부분 무료다. 예외적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일 경우 교재비 등 실비를 부담하거나, 등록 시 예약금을 납부한 뒤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노원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접수 중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결혼에 관심 있는 미혼 커플을 위한 [예비부부교실], 서울생활영역권 1인가구를 위한 환경캠페인 [에코싱글즈 2기] 등 프로그램이 접수 진행 중이다.

센터 운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리적인 제약이 있다. 상계동이나 월계동에 거주하며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센터가 있는 공릉동까지 아이들과 오가기가 쉽지 않다. 센터 공간의 협소성도 아쉽다. 상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적정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일정을 세밀하게 조정하거나 무료 공간을 대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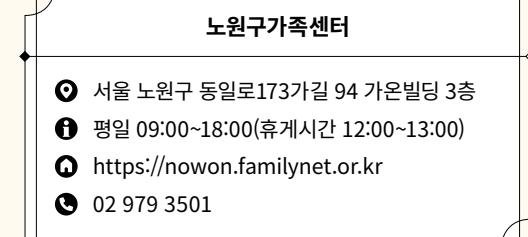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사례를 만나기도 한다. 60대 부부 중 아내가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탓에 남편 사망 이후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내왔음에도 아내는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센터가 줄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럼에도 센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가족들은 직원들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입양 가정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고요.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선아 대리는 지금 우리 사회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가족을 넘어선 연대 의식'을 꼽는다. 서로 느슨하게, 호의적으로 연결된 관계. 주변에 그런 관계가 많아 진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든든할까. 유해리 대리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뒤따르길 바란다. 2024년 5월 기준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150만 명, 단순 체류 외국인의 수만 따지면 260만 명을 훌쩍 넘겼다. 2011년 출간된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의 주인공 도완득의 어머니는 베트남 여성이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 14년이 흘렀다. 우리의 인식은 과연 얼마나 변화했을까.

그런 맥락에서 더욱 소중한 곳이 노원구 가족센터다. 가족센터는 편견 없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곳의 문을 두드려보자. 어떤 가족에 속해 있든 가족센터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다.



봄이잖아요. 우리 같이 걸을까요?

김재천의 시집 『공릉동』과 함께 경춘선 숲길로

"봄이잖아요. 때로 모르는 풀꽃이 보이면 근사한 이름 하나 만들어 달아주고 까르르 웃어요."

시집을 펴고 김재천 시인의 시 <그대 봄에 공릉동에 오시면>을 읽는다.

공릉동을 모르던 사람이라도 시를 끝까지 읽고 나면, 공릉동에 가보고 싶어질 것만 같다.

겨우내의 기나긴 기다림과 달리, 봄은 참으로 새침하게 짧다.

그래서 봄소식은 더욱 귀하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봄을 맞이하고자 길을 나섰다.

겨울을 화려하게 뽐냈던 동백꽃보다 더 붉은 시집 『공릉동』을 품에 안고서.

경춘선 숲길, 경춘철교 위를 걸으며 김재천 시인을 만나러 간다.

봄,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봄의 문학 산책에 동행하실래요?

글. 사진. 이현주(문화PD)

봄을 준비하는 공릉동 경춘선 숲길

경춘선 숲길은 중랑천 건너편 월계동에서 시작해 노원구의 끝자락 담터마을까지 이어진다. 2010년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기찻길 위에 공원이 조성되었고, 지금은 화려한 카페와 음식점, 아기자기한 공예점들이 자리를 잡았다.

문득 경춘선 위로 나의 유년 시절이 겹쳐진다. 초등학생 때 주말마다 성북역에서 기차를 탔다. 경춘선 열차에 올라 한 시간 남짓 달리면 사릉역에 도착했다. 손녀딸을 기다리는 외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찾아온 손녀딸은 서로를 알아보고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작은 손과 큰 손을 포개 잡고 역을 떠나 집으로 향하던 기억. 그러니까 나에게 경춘선은 외할머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매주 기차 안에서 바라보던 공릉동의 풍경을,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다시 떠올린다.





그쪽으로 가면 공릉동이 나와

“가볍게 걸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날개가 보일 거야.”

나만큼이나 경춘선에 각별한 시인이 있다. 경춘선 숲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하는 시인, 김재천이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공릉동의 사계가 담겨 있다. 사상자, 조팝나무, 광대나물, 너도밤나무, 매화, 황새냉이가 인사하고, 오리와 새, 달과 시(詩)가 함께 등장한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릉동의 풍경을 기록한다.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 이름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시구를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다. 김재천 시인처럼 매일 만 보씩 공릉동을 헤아보다 보면, 공릉동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작은 봄의 소리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는다. 시인을 따라 걷는다. 공릉동과 경춘선 숲길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은 시집 『공릉동』을 뒤적이면서. 이 산책이 끝나면, 김재천 시인에게 공릉동과 경춘선 숲길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까.



경춘선 숲길 뷰

공릉동에 봄 오면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걸었다. 숨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조용히, 집중해서 걸었다. 사방이 나무와 풀이다. 아직 꽃을 찾기에는 이른 시기라 조금 아쉬웠다. 대신 가지마다 올망졸망 매달린 여린 새싹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천에 피어 있는 광대나물이나 찔레장미의 존재를 누가 알아봐 줄까.



경춘선 숲길

경춘선 숲길 걷기를 추천한다. 가능하다면 몸도 손도 가볍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보폭을 줄여서. 5.8km에 이르는 기찻길은 구간마다 높이도 깊이도 넓이도 다르다. 산해진미를 음미하듯, 게으르다 싶을 만큼 천천히 걷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가려운 데를 긁은 광대나무
빨간 점이 점점 부풀다가 톡 터졌다.”

봄은 가렵다. 봄볕이 따뜻해서다. 생명을 싹틔우고 키워낼 봄볕은 참으로 호기롭다. 그 호기로움이 연한 살갗을 자꾸만 간질인다. 시인 역시 찔레장미와 광대나물이 겪는 가려움에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이다. ‘부풀다가 톡 터지듯’ 공릉동에도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를 읽으며 걷다 보니, 경춘선 숲길의 작은 생명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봄 내내 이 길 위에서 돌아나는 새싹들을 찾아 헤매게 될 것만 같다.

공릉동을 다 즐겨

“경춘선 숲길
걷다 보면 천이 보이고
걷다 보면 멍춘 기차가 보이고
걷다 보면 건널목이 보이고
걷다 보면 알록달록 예쁜 상점도 보이고
걷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보인다.
때론 걸어오는 외국인 그룹도 만난다.”

공릉동은 이제 노원구민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진 동네가 되었다. BTS 방탄소년단의 RM이 경춘선 숲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방문이 이토록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을까. RM이 걷고 앓고 머물렀던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마주치는 일도 이제 낯설지 않다. 그가 세계인들에게 공릉동을 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재천 시인은 감동을 준 이들에게 종종 현정시로 마음을 전한다. “지구 위의 공릉동을 알아?”로 시작하는 <공릉동을 다 즐겨>는 RM에게 건네는 현정시처럼 읽힌다. 공릉동을 사랑하는 시인에게 RM의 방문은 특별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는 시를 통해 백일홍 꽃다발과 파란 꿈, 다순 마음을 선물하겠다고 말한다. 공릉동을 내 집처럼 여기며, 찾아온 손님을 후하게 맞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공릉동을 사랑하는 시인

경춘선 숲길을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가족 나들이를 위해, 데이트를 위해,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이 길을 오르는 사람들. 그러나 날마다 애정으로 이 숲길을 살피는 시인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다. 이름 모를 야생초와 들꽃을 살피고, 지나가는 철새와 텃새를 눈여겨보고, 하늘을 오르내리는 달마저 품는 사람. 숲길 어딘가에서 식물과 동물을 살뜰히 바라보는 이가 있다면, 아마도 김재천 시인일 것이다.

김재천 시인만큼 공릉동을 사랑하고, 잘 알고, 또 알리는 사람도 드물다. 25년 만에 펴낸 시집의 제목이 『공릉동』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하루만 보 걷기, 그 대부분을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서 보내는 일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다.

제자리에서 매년 봄을 맞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과 놀다가 겨울을 품는다. 경춘선 숲길의 말 없는 역사를 마디마다, 시로 남겨주는 시인 김재천. 『공릉동』 시집을 들고 시작한 산책, 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식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더 커지게 만들었다. 모두 김재천 시인의 인도 덕분이 아닐지.

오늘 경춘선 숲길을 찾는다면 시집 한 권 품고 쉬엄쉬엄, 시와 함께 산책해보시길.

경춘선 숲길

- ① 경춘선숲길방문자센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27길 90 1층
- ② 11:00~17:00 목·금·토·일요일 운영
매주 월·화·수요일 휴무
- ③ <https://naver.me/5huaXzI2>
- ④ 02 3783 5977

밀라노 농담

박하신 소설가의 미니픽션

글. 박하신(소설가)



크루즈 여행을 끊어 두었는데 배편보다 죽을 날이 먼저 도착했다. 증상도 없고 딱히 불편한 점도 없었는데 당장 말기나니 간암처럼 음흉한 놈도 없었다. 놀랐다 기보다 우스웠는데 사람이야 누구든 때 되면 죽는 것인데 이렇다 할 병세도 없이 목숨을 내어 놓으라 권리주장하고 있으니 이건 병보다는 그저 죽음의 핑계가 아닌가 싶었고… 여려모로 딱 좋은 구실이 아닌가. 어쨌든, 죽음에도 구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딱 죽게 생겼네.

아무렴 나는 이제 의학적 진단에 따라 다소간 뻔뻔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 능청의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전처였던 것 같다. 그녀는 내 알코올 의존증을 두고 만성 자살이라고 불렀다. 시치미 떼고 종일 술만 훌쩍이고 있으니 그녀는 내가 지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라고 별 수 있었을까. 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지.

뭔가.

조금은 다를 것 같은 뭔가가.

그녀가 떠나고 나는 재밌는 사람이 되어보려 노력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도자 공예 교실도 신청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해보고 독서니 와인이나 온갖 소모임도 등록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고 당연히 재밌지도, 재밌어지지도 않았다. 크루즈도 그렇고 그런 사정이었다. 밀라노에 도착해 베네치아로 이동한 후 지중해 4국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사정을 봐주는 죽음 같은 건 없는 법이다. 아, 어쩜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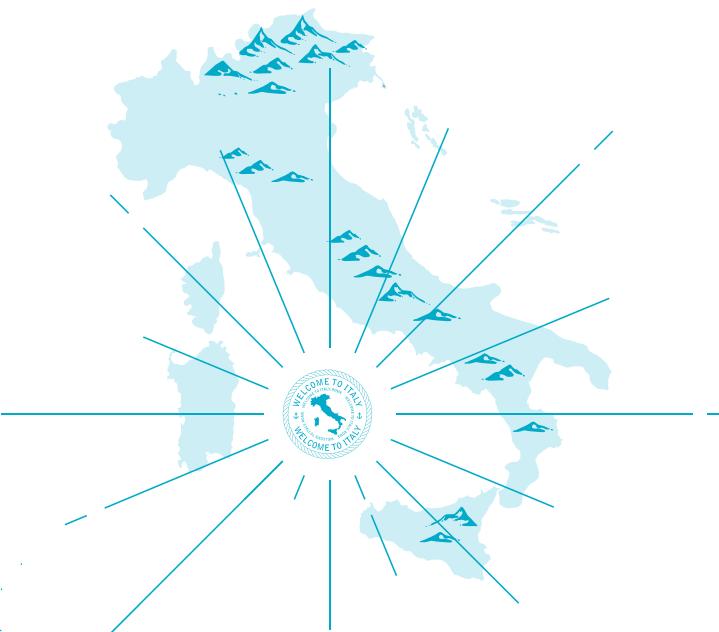
인생이 뻔하지.

난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베카!”

“네.”

베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선다. 베카는 내 쓸쓸함을 제법 잘 달래주는 녀석이었다. 충실한 심복이 되어 말벗도 하고 청소도 한다. 리트리버를 키우라든가, 포포나 무라도 한 그루 심으라든가, 속 좋은 총고도 많이 한다. 주름살 없이 매끈한 인공지능 두뇌 덕이다. 세상은 인공간을 만들어 달랬더니 그냥 인공 인간을 만들어버렸다. 수선해 달라고 따지니 통째로 바꿔버린 셈이다. 합리적인 선택이지. 베카는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토는 법도 없고 구시렁대지도 않으니까.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양곳에 기대를 벗어나는 법이다.



난 베카의 가슴 모니터를 가리킨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난 뒤로 베카의 모니터엔 내 바이탈 사인이 표시되고 있다. 나더러 참고하라는 것 같은데, 저 녀석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베카가 모니터를 끈다. 심박을 표시하던 그래프가 꺼진다.

“이런, 돌아가셨네.”

“말했지? 넌 재미없어.”

그래도 모니터가 보이지 않으니 좀 나았다. 죽을 날짜를 받아 드니 심장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심박 그래프가 요동치는 걸 보고 있어 봤자 죽음이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 박자가 상상될 뿐이다. 다만 그가 번지수를 조금 헷갈리고 있을 뿐이다.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 어디까지나 기대할 게 남아 있을 때뿐이다.

“베카. 넌 내가 묻는 말에는 무엇이든 답하게 되어있어. 그렇지?”

“네, 맞아요.”

“내 크루즈 여행이 언제지?”

“집을 나서는 시간 기준으로 67일 12시간 24분 남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

“… 그건 제가 답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베카는 모르겠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난 베카가 말하는 ‘대답할 수 없다’의 의미를 안다. 그건 알고 있으나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공 살갗도 오래 마주하고 있으려니 그것의 뉘앙스라는 걸 알게 됐다.

“베카.”

“네.”

“이제 나한테 충전해도 되는지 안 물어봐도 돼.”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어요.”

“고지식하긴. 내가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넌 좀… 지루한 구석이 있어.”

“저한테는 삼백 가지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삼십 팔만여 개의 농담이 있어요.

유머 레벨을 조금 상향할게요. 기분이 상하지 않게 선에서 한번 빙정대볼까요?”

“사양할게. 그리고 그것 좀 꺼줘.”



“베카.”
“네.”
“세상이 알궂은 걸까 내가 마련할 걸까?”
“들 다라고 생각해요.”
“은퇴해서 피아노나 치고, 시한부 통보 받고
크루즈 여행이나 떠나고, 세상이 멸망한다면?
나무 심고 물이나 주겠지. 젠장.”
“저도 슬퍼요. 밀라노 여행을 기대했거든요….”
“아, 이 부분은 농담입니다.”
“빈정 레벨을 좀 낮춰줘.”
“네.”

“있잖아, 이제 보니 내 인생은 좀 지루했던 것
같아. 난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 살다 보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다는 말이야.
지루함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내 인생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이쯤에서 하품하면 기분이 상하실까요?”
“하품이 나을 법한 삶이겠지. 어디였는지
누군가 끝이 있으니 매 순간 의미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반대 같아.
끌이 있으니 허무하고 지루한 거야.”
“저로는 부족하실까요?”

“베카. 끌이 없는 삶이란 건 뭐지?
너라면 알고 있을 텐데.”
“저도 언젠가 끌이 올 거예요. 충전을 허락하는
사람이 간암으로 결을 떠나면.”
“그래도 생각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글쎄요. 그건 자신의 순간을 인생에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신의 순간?”

나는 잠시 그 순간이 무엇일까 떠올려본다. 내게
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몇 가지 사소한 기억들이 떠올
랐다. 금세 흩어진다. 잠깐이나마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
오르면 질세라 후회가 잇따른다. 지금이라도 그런 순간
을 만들 수 있을까.

“난 너무 늦은 것 같지?”
베카는 고개를 젓는다.

“곧 올 겁니다.”

“곧?”
“제가 그 말을 안 했던가요?”

제 모델에는 약간의 예지 능력이 포함돼요.”
“안내서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유료 옵션이거든요. 결제해 드릴까요?”
“넌 좋은 녀석이야. 장사치란 점만 빼면.”
“얼마 안 해요.
눈 감으실 때 지갑을 들고 가실 건가요?”
“얼만데?”
“한화로 412만 8천 원입니다.”

내가 주저하자 베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포포
나무에 물을 줄 시간이군요.”하고 자리를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밖으로 정원을 거니는 베카의 모습이 보
였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 피식 웃는다. 412만 8천 원. 그
건 밀라노행 크루즈의 티켓 값이다.



창문 넘어 찾아온 오케스트라 선율

2025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주말은 바쁘게 달려온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주말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며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필자는 주말이 끝나가던 어느 일요일 오후,
상계주공아파트 12단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위해 짧은 산책에 나섰다.
이웃들이 오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펼쳐지는 야외 오케스트라 라이브 공연이라는
소식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보고 듣는 음악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다.
평범한 주말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준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글. 강혜빈(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강혜빈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던 일요일 오후 4시, 상계주공아파트 12 단지에서는 음악회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울려 퍼질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기다리며 주민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벼운 웃음과 담소가 오가는 가운데, 조용했던 일상은 음악으로 물들 채비를 마쳤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화려한 콘서트장에서 열리는 공연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나 지역 문화 공간 등 일상에서 익숙한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연주회다. 또한 오케스트라 하면 흔히 떠올리는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와 뮤지컬 OST, 대중음악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번 공연을 이끈 단체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였다. 2003년에 창단된 이 오케스트라는 실력과 음악적 열정을 겸비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민간 프로 오케스트라로, 정기연주회와 초청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연에 앞서 간단한 개회 인사와 함께 주요 내빈들이 무대에 올랐다. 행사를 주최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에는 26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상계주공아파트에서 공연을 열게 됐다”며 “일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격식 없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송재혁 서울시의원은 “마치 동네 축제처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라며 “선선해진 날씨 덕분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들은 무대 앞자리에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즐겼다.

이날 지휘봉을 잡은 이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를 창단 이래 이끌어온 방성호 지휘자다. 그는 특유의 유쾌함과 열정으로 공연을 이끌며 관객과 눈높이를 맞춘 편안한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휘봉이 올라가자 단원들의 힘찬 연주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풍성한 선율이 건물 사이를 가득 메웠다. 익숙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OST가 흘러나오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집중하며 무대를 바라봤다.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콘서트홀이 된 듯한 순간이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색소폰의 매혹적인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경쾌한 멜로디가 색소폰 특유의 깊은 호흡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은 마치 드라마 속 장면에 들어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즐겨 듣던 대중가요를 오케스트라와 색소폰 편곡으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공연 중간중간 방성호 지휘자의 유쾌한 진행도 분위기를 살렸다. 그는 곡 사이마다 마이크를 잡고 연주곡에 얹힌 이야기나 감상 포인트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덕분에 관객들은 웃음과 감탄을 잃지 않았고, 객석과 무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공연 내내 이어졌다.



소프라노 안혜수가 무대에 등장하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뮤지컬 <캣츠>의 ‘Memory’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자, 일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잔잔한 감동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어 그녀는 패티 김의 명곡 ‘그대 없이는 못 살아’를 불렀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로 시작하는 가사가 힘 있는 성량으로 터져 나오자 종장년층 관객들의 눈가에는 추억의 빛이 어렸다. 안혜수는 청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노래를 풀어냈다.

모든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앙코르를 바라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박자를 맞추던 관객들도 이내 큰 소리로 “앙코르”를 외쳤다. 이에 화답하듯 연주자들은 다시 무대에 섰고, 공연장은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기타와 드럼, 오케스트라의 합주로 새롭게 편곡된 김광석의 노래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안기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상계주공아파트 단지에는 뜨거운 함성과 웃음이 가득 퍼졌다.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삼삼오오 모여 공연 이야기를 나눴고, 몇몇 아이들은 흥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지휘 흉내를 내며 놀았다. 일상의 공간을 특별한 무대로 바꿔준 음악의 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만든 이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조용한 선율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2025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 2025.4.27.(일)~11.15.(토)
- 노원구 전역
- 02 2289 3421

인형극, 내 안의 어린이와 내 옆의 어린이가 만나는 무대

캐나다 국립인형극학교 인형 치유 워크숍

지난 5월 27일 낮 1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센터장 이승훈)에서
인형극(人形劇)의 매력과 예술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특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인형극이 어린이들에게 판타지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차원을 넘어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정신건강 환자,
외로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무한한 예술 치유의 경험을 줌으로써
예방적 사회예술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워크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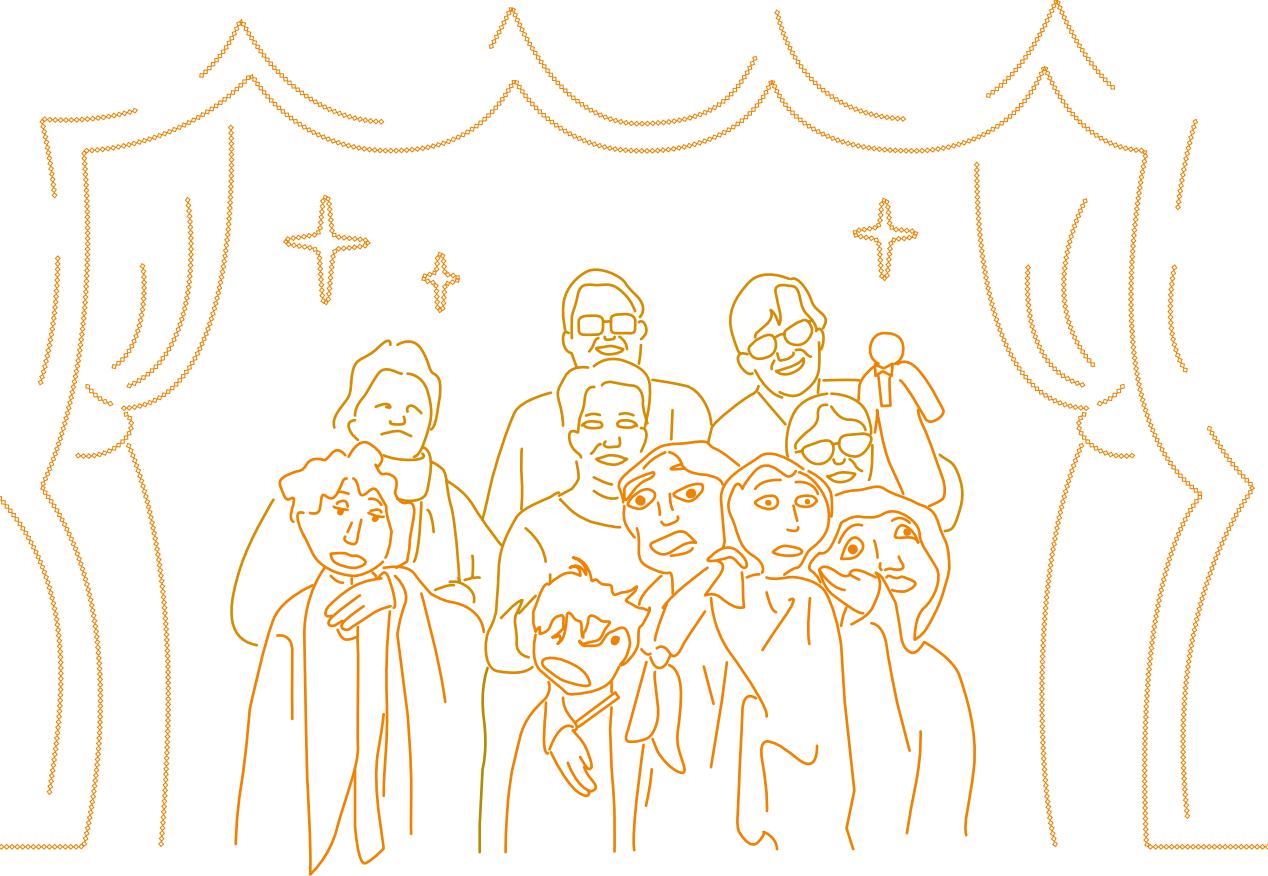
글. 고영직(문학평론가)

‘인형조종술’이
나를 구원한다

이날 워크숍은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과 스쿨씨어터협동조합(이사장 김병호)이 공동주최했다. 그리고 워크숍은 캐나다 국립인형극학교(ÉNAM) 예술감독인 리처드 부샤르(Richard Bouchard)가 맡았다. 그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인형극인들의 축제인 제24회 유니마(Unima) 총회를 겸해 열리는 춘천인형극축제 참석자 방한했다. 2025년 유니마 총회는 ‘경계를 넘나드는 인형(Puppetry Beyond Borders)’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 열렸으며, 리처드 부샤르는 정신건강과 교육 분야에서 인형극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접근하는 캐나다 국립인형극학교(ÉNAM)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인형극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70대 이상 노년 세대 참여자 10명을 비롯해 정신건강 및 교육 전문가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인형극 치유 워크숍이 각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형극이 더 이상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깼다는 점에 있었다. 유니마 총회가 ‘경계를 넘나드는 인형’을 표방했듯이,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형극이야 말로 세대, 문화, 언어, 시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과 치유 그리고 상상력을 매개하는 훌륭한 예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리처드 부샤르가 인형극을 처음 만난 것은 1978년이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인형극을 시작했으며, 와이어 조작 인형을 디자인했다. 이후 퀘벡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인형극 공연과 거대 인형을 공부했다. 그리고 1981년 ‘운명적으로’ 23명의 행동장애아동과 함께 <마법에 걸린 바다(La mer ensorcelée)>를 공연하면서 인형극의 교육·치유 효과를 확인했다. 24살이었다. 그는 23명의 어린이들과 인형극을 하면서 인형극이 주는 관계의 힘을 실감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새들의 왕’ 노릇을 하며 “인형극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맛보았다.



그후 그는 1990년에 국립인형극 학교(ÉNAM)를 설립해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치유 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부터 연구논문 또한 여러 편 썼다. 그가 1981년 무렵부터 찰영한 13분짜리 영상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만난 치매 노인, 고위험군 정신건강 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들이 국립인형극학교 프로그램에서 캐릭터 인형을 만들고, 자기 문제를 스토리로 만들어 인형극을 만들고, 무대에 공연함으로써 자신과 직면하는 여러 참여자들을生生히 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얼굴 없는 남자>를 무대에 올린 어느 성인 참여자의 사연이었다. 그는 부모와 공동체에서 버려진 자신의 고통을 인형극을 통해 표출했다. 아이디어부터 연출까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무대에 올렸다. 극중 처음엔 ‘얼굴 없는’ 남자였던 캐릭터가 점점 자신의 ‘얼굴’을 회복해가는 연출이 펼쳐지는 작품이었다. 어쩌면 그는 인형을 통해 내 안의 감추어진 창의성을 발견하고, 점차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난 것이었으리라. ‘인형조종술’이 그를 구원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문학평론가 김유진이 『구체적인 어린이』(민음사 2024)에서 인형의 효과에 대해 “내 안의 어린이가 내 옆의 어린이와 만난다”고 한 말은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인형극은 그렇듯 ‘보이는 나’와 ‘원래의 나’를 분리시키며 객관화하는 훌륭한 미적 거리 두기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부샤르가 워크숍에서 소개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1939) 속 한 구절 또한 인형극(예술)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를 강력히 환기 한다.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역할을 알 때,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때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평화롭게 생을 마칠 수 있다.” 인형은 그런 점에서 내 안의 페르소나(persona, 가면)라고 확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인형극 치유 워크숍은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하지만 10명의 70대 노년 세대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10여 명의 참관인들은 잠시도 한 눈팔지 않고 몰입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인형극에서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했고, 인형극 캐릭터 만드는 법에 재미를 붙였다. 그처럼 리처드 부샤르는 고령의 참가자들이 인형극 제작의 전 과정을 '맛보기'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호흡을 통해 감정 표현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리고 캐릭터 재료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했다. 하지만 캐릭터의 재료는 너무나 흔해 빠진 것이었다. 주방용 장갑, 가위, 뜰채, 쌀 주머니, 플라스틱 우유통… 어쩌면 세상의 온갖 재료를 재활용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처드 부샤르는 이번 인형극 치유 워크숍의 참여 대상을 70대 이상 노년 세대로 정했다. 노년기의 '변화'를 이끄는 데 관심을 쏟는 국립인형극학교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참여자들은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씩 그 이유를 짐작했다. 어느 세대보다 '살던 대로' 살아온 관성과 관행이 강력한 노년 세대가 '조금 다른' 세계를 꿈꾸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부샤르가 노인을 '오랫동안 젊은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며, 그동안 만나온 인형극 치유 참여자들이 한목소리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한 소감을 들려주고자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급증하며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하루 평균 40명(39.5명)이 자살하며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수록 끈끈한 점도(粘度)가 희박해지는 시절, 인형극 치유는 예방적 사회예술정책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형극 치유 워크숍은 미국 인문학자 얼 쇼리스가 주창했던 클레멘터 코스(The Clemente Course in the humanities)를 연상하게 한다. 인문학이 그랬듯이, 인형극을 비롯한 예술의 힘은 관계의 힘에서 비롯한다. 인형극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차원에서 인형극 예술이 갖는 사회적·예술적 효과는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워크숍에 참여한 '공릉동 시인' 김재천(75)의 소감을 들어보자. "놀라웠다. 인형극이 시 쓰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시인 랭보가 시인은 발견하는 사람[見者, voyant]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처럼 또 다른 나를 보는 시간이었다." 인형극은 조금 다른 나, 조금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 안의 어린이가 내 옆의 어린이와 만나게 한다. 나이 들수록 내 안의 어린이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진다. 하지만 인형극 치유 워크숍은 내 안의 어린이를 발견하고, 내 옆의 어린이와 다정한 동무가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훌륭한 미디어라는 점을 일깨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름 더위와 도시 소음 대신, 나만의 음악 피난처

월계도서관 & 노원구청 & 노원수학문화관

끝없이 길어지는 여름, 습하고 뜨거운 공기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땅볼에 시든 식물처럼 어느덧 우리의 오감도 활력을 잃는다. 맛있는 음식도, 차가운 에어컨도, 시원한 샤워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더 이상 방 안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좋은 음악이 가득한 청량한 장소가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청각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주요한 감각 중 하나다. 우리는 생존과 소통을 위해 늘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생활의 소리를 잠시 뒤로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나러 간다.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요즘, 우리 동네의 떠오르는 힐링 스포트에서 음악이 주는 안식을 누려본다.

글. 이미령(노원아띠 PM) 사진. 이미령, 노원수학문화관



CD,
고음질로 고막 호강시키기:
월계도서관 달빛소리홀

- 월계도서관
서울 노원구 월계로 319
-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기타 지정일 휴관
- <https://nowonlib.kr/wolgye>
- 02 991 0871

2025년 2월 새 단장을 마친 월계도서관은 월계역과 인덕대학교 인근 월계로에 접해 있다.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무료 공공버스 노원행복버스 노선에도 포함되어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월계도서관 곳곳에 불거리가 적지 않지만, 오늘은 4층에 마련된 달빛소리홀에 주목해보자.

4층 복도 끝에 자리한 달빛소리홀에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기기, 편안한 좌석, 무인 카페 기기와 세면대까지 갖춰져 있다. 라이브 연주가 이루어지는 서가 클래식 살롱 콘서트, 예술의전당 공연을 그대로 옮긴 SAC ON SCREEN 영상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무엇보다 반가운 공간은 CD 리시버가 비치된 창가의 청음 공간이다. 음악 장르 별로 나뉜 벽면 서랍장에서 원하는 CD를 고른 뒤, 리시버와 리모컨을 이용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서랍장 속 CD 컬렉션은 빌 에반스 트리오, 첫 베이커 같은 재즈 명연주자부터 버스커 버스커처럼 대중적인 아티스트까지 폭넓다.

뮤직 큐레이션 섹션에는 추천 음반도 함께 전시된다. 현재는 2025 한국대중 음악상 후보작과 수상작이 고루 진열되어 색다른 음악과의 마주침을 주선한다. 풍부한 음질을 사랑하는 테크닉스 오디오 시스템과 프라이빗한 헤드폰은 음악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만든다. 음악 잡지가 함께 비치되어 있어 감상 중 가볍게 훑어볼 수 있으며, 무인 카페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도 있다.



LP,
레트로한 한 뱀의 위로:
노원구청 공중평상

-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 평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휴관
- <https://www.nowon.kr/math/main>
- 02 2116 3114

분주한 노원역 근처, 잠시 숨 돌릴 곳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기억해두자. 노원구청 청사 2층에 자리한 공중평상은 작지만 알차다.

2022년 1층 로비 전체를 오픈 카페 형태로 리모델링한 노원구청 청사는 관공서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며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서울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오피스 갤러리, 실내 정원, 카페테리아 노원 437, 책장과 간이무대 사이에 공중평상이 숨어 있다. 본관 정문으로 들어서 입구를 마주하면 원편에 공중평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계단 위에는 시골집 평상을 닮은 나무 데크가 자리한다. 곳곳에 작은 탁자가 있어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여럿이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 로비의 소음을 피해

조용함을 찾는 이들에게도 충분한 공간이다. 그러나 공중평상의 진짜 매력은 벽면을 따라 진열된 LP판과 이를 감상할 수 있는 턴테이블, 헤드폰이다.

터테이블 설명서를 따라 음반을 올리고 바늘을 얹으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큼직한 오디오테크니카 헤드셋을 놀라쓰면 다른 공간의 도달한 기분이다. 청음을 위한 좌석은 단 세 자리뿐이지만, 적당한 간격과 푸신한 소파 덕분에 눈을 감고 쉬기에 부족함이 없다. 7080세대를 위한 포크송부터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O.S.T. 같은 비교적 최근작까지 LP 컬렉션은 폭넓다. 음반은 정기적으로 교체되어 늘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음악에는 필연적으로 추억이 담긴다. 언젠가 어디선가 공중평상의 LP로 들었던 음악과 마주했을 때, 당신이 떠올릴 추억은 과연 어떤 빛깔일까.



LIVE,
일요일 오후 동네 콘서트:
노원수학문화관

- 노원수학문화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9길 28
- <수학+음악=힐링> 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4:00~14:30
- <https://www.nowon.kr/math/main>
- 02 2116 2185

<수학+음악=힐링>은 노원수학문화관이 2021년 1월부터 매달 일요일마다 운영해 온, 제법 오래된 음악 공연 프로그램이다. 전시관 관람 중 30분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노원구민은 전시관 관람이 무료이며, 타 구민은 소정의 입장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층 로비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놀라울 만큼 다양하다. 비올라 독주, 가야금 독주, 기타 트리오, 클래식 앙상블, 단체 아코디언 연주까지 장르와 형식이 폭넓다. 전문 음악인뿐 아니라 색소폰 동호회, 중계초등학교 플루트 동아리 등 생활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무대를 개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재능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오랫동안 악기를 연습해 왔지만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실력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들어보았나요? 36개월 미만 아기를 위한 연극, 영유아극!

몸의 감각으로 대화하는 영유아극 <오!>

여기, 세상의 모든 것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

모든 것을 새롭고 놀랍게 마주하고 경험하는 존재, 아기.

아기는 손에 닿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쉽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충분히 느끼고, 온전히 바라본다. 어쩌면 감각으로 느끼는 영역에서만큼은

아기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아기와 소통하고자 만들어진 연극이 있다. 바로 36개월 미만의 아기를 위한 영유아극이다.

몸의 감각으로 대화하는 연극, 영유아극. 그리고 그중에서도 작품 <오!>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글. 사진. 박주아(노원아띠 기자단)

36개월 미만 아기를 관객으로 하는 영유아극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는 아기에게도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장르가 바로 영유아극이다. 그렇다면 영유아극은 어떤 연극일까?

영유아극은 국내에서는 아직 신생 장르에 가깝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장르다. 약 40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영유아극은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매년 100편 이상의 작품이 제작될 정도로 각국에서 활발히 공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아시테지 축제 무대에서 영유아극이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에서도 영유아극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극 예술가들에게 이 장르는 '아기라는 존재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들에게 아기는 교육해야 할 미완의 존재가 아니라, 감각으로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완전한 존재다. 영유아극은 아기 관객과 양육자가 함께 관람하는 형식을 띠며, 공연의 구성과 내용 역시 일반 연극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만큼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창작그룹 치치타타
대표 박주아 인터뷰



안녕하세요. 창작그룹 치치타타 대표 박주아입니다. 치치타타는 36개월 미만의 아기들과 소통으로서의 연극을 실험하는 그룹입니다. '치치타타'라는 이름은 성냥을 굿는 소리 '치~'와 불이 타는 소리 '타닥타닥' 소리를 합쳐 만든 이름이에요. 모닥불을 피우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듯, 이들의 연극 역시 영유아와 가족에게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영유아극의 출발은 언제였나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엄마가 되면서 아기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어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정신없고 책임이 따르며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죠. 당시에는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아기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느 날, 아기가 17개월쯤 되었을 때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래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길래 아기 옆에 몸을 낮추고 함께 바라보았어요. 그저 모래를 던지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모래를 던질 때 생기는 먼지가 햇볕에 비춰 반짝이더라고요. 아기는 그걸 보며 감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기는 분명 나와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세상이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아기가 보는 세상을 나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영유아극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어요. 아기랑 보낸 시간을 기록하고 발견하며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영유아극의 창작을 시작했답니다.

작품 <오!>를 소개해 주세요.

<오!>는 관객 연령을 24개월로 정하고 리서치를 거쳐 창작한 작품이에요. 일상과 연극의 경계 없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아기 관객에게 어떤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이 작품은 서로 전혀 모르던 두 존재가 만나 가까워져 함께 춤을 추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와 완전히 교감했다고 느끼는 순간의 즐거움과 환희를 이야기해요.

저는 제 일상에서 항상 궁금한 주제가 바로 ‘만남’이에요.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되었다는 느끼는 그 순간에 대한 열망과 궁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에게 타인과 소통되고자 하는 열망은 너무나 크죠. 아기는 사람이 아닌 존재와도 관계를 맺고 싶어하니까요. 아기와 어른 창작자, 결국 인간 모두에게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보았어요.

<오!>는 아기에게 익숙한 일상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공간이에요. 극장이 편안한 장소일수록 아기의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찾아가는 공간을 지향한답니다. 아기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최우선에 두고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무대는 비우고, 배우의 몸만으로 아기 관객을 만나요. 음악이나 소품, 오브제 대신 배우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와 움직임으로 아기와 소통하고자 한답니다.

앞으로의 창작그룹 치치타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어요. 아기 관객을 만날 때마다 여기에 완전하게 살아있는 관객을 만나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벽참이 있어요. 원초적인 인간을 만난다는 것이 매번 새롭고 즐거워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 공연을 하고 싶어요.

또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연극의 경험이 아기 관객에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기에게 처음일 연극의 경험이 삶 속으로 번질 수 있다면?’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아기 관객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고민과 질문들을 지나치지 않고 더 연구하며 공연을 다듬어 가고 싶어요.

창작그룹 치치타타가 궁금하다면

- ◎ 인스타그램 @chi_chi_tata
- ◎ 브런치 글 brunch.co.kr @1943f4e934c940f/1
- ◎ 영유아극 <오!> 메이킹 필름 www.youtube.com/watch?v=Y1i1TNVWfgU
영유아극 <오!> 솟츠 www.youtube.com/watch?v=DLPA-ONffZo



(위) 몸의 감각으로 소통하는 영유아극 <오!>

(아래) 고양지축위스테이의 이름도서관에서 아기 관객을 만나는 모습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마라톤은 초반 스피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마라톤 선수가
스피드를 계속 유지하려면 간간이 물도 마시고
또 앞뒤 선수와의 거리도 체크해야 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시작도 잘 해야 하지만
또 중간중간 세워 놓았던 계획들을 꺼내어
차근차근 돌아보고 다시 줄을 세워야
연말 즈음해서 만족과 후회가
연초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나타날 테니까.
노원은 마라톤 선수들에게 스펀지 물처럼
쉼과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명소가 많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그리고 영축산까지
동서남북으로 4개의 산이 우거져있고,
노원구를 가로지르는 중랑천은
당현천과 우이천과도 합류하면서
사계절 내내 멋진 풍광을 선물한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시인 천상병

천상병 시인 공원, 수락산을 가다

노원의 멋진 풍광이
서울 안에도 소문이 났었을까?
이 좋은 곳으로 스며들어온 ‘쉼’을 참 잘 아는
시인이 있다. 바로 천상병 시인이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약 8년간
상계동에 살면서 수락산 자락의 자연 풍광과
동네를 배경으로 일상과 따뜻한 시선을
시로 남겼고, 그의 소소하지만, 깊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시들은 상계동 수락산 주변 곳곳에
묻어 있다. 천상병공원은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천상병 시인의 시가 함께하며 느긋하고 차분한
여유를 선사한다.

바쁘게 살아온 우리를 위해
'쉼'을 선물해보면 어떨까?

글. 사진. 이현주(노원 문화PD)



천상병 시인의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가 바로 '귀천'이다. 달관한 시선(詩仙)의 여유에서 느껴지는 유쾌한 죽음은 그의 작품 '귀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가장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늘에서 왔으니, 생명이 다하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며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했다. 그의 시상에서처럼 천상병 시인도 수락산 자락 상계동에서 즐겁게 지냈다는 증거가 바로 자유롭고 재치 있는 천상병 공원에서도 느껴진다.

새벽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경치와 사람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 한다. 천천히 보고 자세히 봐야 예쁘고 귀해 보이는 법인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유를 허락받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수락산을 올랐다. 수락산 입구 수락문을 경계로 일상에서 잠시 눈과 손과 머리를 탈출시켜 수락산 초록빛으로 스며들었다.

여기는 상계1동
산에 가면 계곡이 있고
나는 물속에 잠긴다.

천상병 시인은 상계동을 그리고 수락산을 참 사랑했나 보다. 시 <새벽>에서 차가운 새벽 계곡물에도 망설임 없이 잠겨 새벽 일출을 즐겼다. 수락산은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져 거대한 암벽 등의 기암괴석이 많지만 굽이굽이 샘터와 폭포도 많고 계곡이 깨끗하고 가까워 등산객이 아니라도 산책하는 길에도 기꺼이 맑은 물을 내어준다. 시인은 이 계곡에서 신선처럼 물에 잠겨 새벽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것이다.

아침을 맞이하기 전 산기운과 물기운을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운 시인은 오늘 하루를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살아갈까? 아침은 아니지만, 시인을 따라 계곡을 걸어 들어가 본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등산길에 만나는 바람처럼 시원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있을까? 악산은 아니지만, 수락산도 제법 산이 높고 봉이 많아 여러 갈래 등산길마다 오르는데 드는 품이 다르고 그래서 등산로마다 느껴지는 매력도 차이가 크다. 힘들게 오르면 기쁨도 큰 만큼 바람도 더 시원하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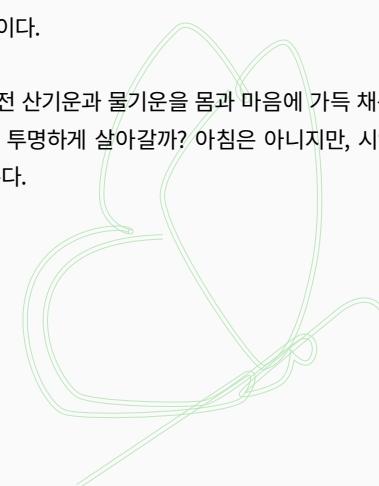
지금 좀 힘들어도 곧 좋은 바람을 만날 것이다. 바람도 강약이 있고 다 길이 있듯이 우리 삶도 높고 낮음이 있고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으니 내려다만 보지도 또 올려다만 보지도 말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희망

하늘 위 구름 송이 같은 희망이여!

천상병 시인 산길은 오르고 내리는 길이 큰 힘 들지 않아 참 좋다. 쉬엄쉬엄 걸으라 촘촘히 세워둔 시판 위에 시를 읽다 보면 어느새 산의 중턱까지 올라와 있다. 천상병 시인이 함께 걸어가면서 시를 읊어주는 느낌이라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어 정말 좋다.

수락산 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남겨두고 온 업무들과 돌아가야 할 문제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나도 모르게 입가가 벼워져 있다. 천상병 시인이 말한 대로 발걸음도 가벼이 이제 내일로 가야겠다.



천상병 시인 타임 캡슐: 2130년을 기다려본다

수락문을 지나 수락산을 오르는 길 중간쯤 건너편 길에 천상병 공원 동상과 천상병 타임캡슐이 있다. 시인의 41종 203점 유품을 시인 탄생 200주년이 되는 2130년 1월 29일에 공개될 때까지 타임캡슐에 담겨 있을 것이다. 1930년생 천상병 시인이 살아계신다면 올해로 95세의 여전히 귀엽고 천진난만한 호호할아버지일거다. 한국 여성 평균 기대 수명이 86.4살이라니 타임캡슐 공개를 직관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한 3대쯤 후손이 여전히 노원에서 살고 종종 천상병 공원을 산책하다 운 좋게 타임캡슐 공개를 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천상병을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게 될까? 2130년을 기다려 본다.

행복을 잘하는 천상병 시인처럼 :

지금까지 잘했다 토탁이고

남은 한 해도 행복하자

천상병 공원부터 천상병 산길을 걸으며 누구보다 행복을 잘하는 시인 천상병과 함께한 이 길 위에 모두가 천상병의 행복에 전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컵 안의 물을 보고 누군가는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실망하고, 누군가는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고 기뻐한다. 6월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해의 반에 대한 성적표를 매긴다. 생각한 대로 잘해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혹시 계획한 일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 반년이나 남은 시간에 희망을 기대해 보면 좋겠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시가 있는 상계동 천상병 공원과 천상병 산길에서 한 해의 절반을 잘 보내주고 또 그 절반을 잘 맞이하길 바란다.

천상병 공원과 천상병 산길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6-4

드디어 개장한, 서울의 유일한 도심 자연휴양림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 수락 휴

이곳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긴장할지도 모른다.
남들에게 추천해야 할지, 정말 나만 알고 있어야 할지 말이다.
이제껏 어떤 자연휴양림도 도심 안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이곳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놀라운 자연경관 때문에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노원구를 대표할 새로운 장소로 자리 잡게 될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 휴,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까?

글. 박주아(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구청

트리하우스



햇살정원 객실 모습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 객실의 구성이다. 일반 객실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훨체어 이동을 고려한 화장실을 갖췄다. 휴양림 뒤편의 무장애 숲길까지 이어지는 동선도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불명촌에는 매일 불이 지펴지고, 어린이 투숙객을 위한 물총과 나무로 만든 동물 조형물도 준비되어 있다. 개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공간은 이미 숲에 스며든 듯 자연스럽다.

수락 휴 숙박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매월 7일 14시부터 9일 18시까지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예약을 받는다. 이후 10일 14시부터 잔여 객실에 한해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1인 1객실, 1박 2일 만 예약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다.

한 번 방문한 이라면 분명 다시 찾고 싶어질 수락 휴. 숲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에서 자연을 느끼며 이곳에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불명촌



서울 한복판에서 차 소리 대신 새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휴식이 된다. 여기에 더해 수락 휴의 공간 구성은 여느 호텔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숲 사이로 숙박동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수록 이곳이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특히 수락 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는 외관부터 이국적인 인상을 주며,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별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침실 구조는 이 공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햇살 정원의 객실은 이름 그대로 별빛을 중심에 둔 공간이다.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객실을 채우고, 정갈한 가구 배치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두 개의 큰 창은 숲과 하늘을 동시에 끌어들인다.

수락 휴는 호텔과 달았지만, 다른 측면들이 많다. 일회용 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TV를 두지 않으며,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구조 역시 의도된 디자인이다.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두면 이 공간을 훨씬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 휴'

- 서울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8
- <https://www.nowon.kr/surakhyu/web/main>
- 02 2116 0785

김광석의 노래, 수락산 노을 아래 다시 피어나다

2025 수락산 선셋음악회 김광석 콘서트 ‘나의 노래’



수락산 자락 아래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일까.

5천 석이 마련된 대규모 공연이었지만 현장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하고 쾌적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노을 속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위로였다.

글. 박미경(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노을 속에
울려 퍼진
‘나의 노래’

6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수락산 스포츠타운 야구장. 김광석의 음악과 수락산의 노을, 그리고 5,000명의 시민이 함께한 2025 수락산 선셋음악회가 열렸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선셋음악회는 <김광석 콘서트-나의 노래>를 주제로, 고인의 대표곡과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채워졌다.

공연은 ‘처음 그 순수로의 회귀’라는 문구와 함께 상영된 뮤직비디오로 시작됐다. 김광석의 생전 무대와 무대 뒤 이야기, 그가 남긴 목소리와 메시지가 영상으로 되살아나며 관객들을 공연의 서사로 이끌었다.

티켓과 운영:
음악회다운
품격의 시작

이번 음악회는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됐다. 전화(5월 22~23일)와 인터넷(5월 29~30일) 예약을 통해 각각 2,500석씩 총 5,000명이 사전 신청할 수 있었다. 종복 신청은 불가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약 가능했다. 신청자들은 당일 오후 3시부터 현장에서 손목 밴드를 수령해 입장했고, 신분증과 예약 문자로 본인 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뤄졌다.

현장 운영 역시 안정적이었다. 야구장 내부에는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고, 무대 주변과 관람석 곳곳에서 관객의 입·퇴장 동선을 친절하게 안내했다. 5천 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배치가 질서정연해 관람 환경은 매우 쾌적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자원봉사자들과 운영진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이 음악회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의 문화 축제임을 보여주었다.

김광석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노래

첫 무대는 유리상자가 열었다. 유리상자는 “수락산 선셋음악회와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 두 개의 상징적인 음악회가 하나가 되었다”며 이 자리가 자인 의미를 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즉석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김광석의 곡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언급했고, 유리상자는 무대 위에서 이 곡을 즉석으로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출연진들은 각자 김광석의 노래 두 곡과 자신의 대표곡 한 곡을 선보였다. 자전거탄풍경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젠 떠나가세요」와 영화 <클래식> OST로 잘 알려진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불렀다. 박시환은 「이등병의 편지」, 「그날들」과 함께 데뷔곡 「다만 그대를」로 무대를 꾸몄다. 그는 “김광석 선배의 노래는 어린왕자 같은 책과 같다”며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박학기는 생전 김광석의 공연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불렀다. 영상과 실시간 공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현장의 감동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광석이일 것”이라는 그의 말에 관객들은 긴 박수로 응답했다.



(왼쪽) 가수 겸 감독인 박학기는 김광석 공연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불렀다.
(오른쪽) 기타의 꿈을 놓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김광석을 상징하는 통기타 증정식을 진행했다.

장필순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혼자 남은 방」,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를 부르며 “힘든 시간에 김광석의 음악이 힐링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돌보며 받은 위로의 경험을 나누며, 노래의 가치와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규현은 “노원의 아들입니다”라는 말로 무대를 열었다. 초·중·고를 모두 노원에서 졸업한 그는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내 사랑」과 자신의 대표곡 「광화문에서」를 불러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왼쪽) 노원의 아들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규현

(오른쪽)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진들이 모두 나와 ‘널 사랑하겠어’, ‘나의 노래’, ‘일어나’ 등을 함께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무대는 동물원이 장식했다. 「변해가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시청 앞 지하철역」은 관객들의 떠오르는 추억으로 이어졌고, 김광석과의 추억을 담은 인터뷰 영상은 진한 여운을 남겼다. 모든 출연진이 함께 부른 「널 사랑하겠어」, 「나의 노래」, 「일어나」를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렸다. 이 음악회는 김광석을 기리는 자리를 넘어, 여전히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장이었다.

기억으로
남을
여를 저녁

우리 동네에서
만난
음악의 위로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한 가지를 느꼈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선선한 바람과 노을 속에서 따뜻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출연진에게 아낌없는 호응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무대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5 수락산 선셋음악회 김광석 콘서트 ‘나의 노래’

- 2025.6.14.(토) 18:30
전석 무료(사전 예매)
누구나 관람 가능
- 수락산 스포츠타운 야구장
- 축제기획단
02 2289 3461

고독 속에 피어난 다정함, 한국 근현대 거장전을 걷다

다정한 마음, 고독한 영혼: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

마음의 룰모델이 있다면 누구일까.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지 모를 때, 이 전시는 하나의 해답을 건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 근현대 거장전은

‘다정한 마음, 고독한 영혼’을 주제로 12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전쟁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정신, 고독 속에서도 다정함을 택한 거장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아이들에게도 이 다정함이 스며들어 인성이 자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글. 임주연(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노원문화재단, 임주연



거장들의 흔적, 한국 근현대사의 기록

1관에 들어서면 김은호 작가의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김은호는 고종과 순종의 어진 복원에 참여한 마지막 왕실 화가다. 정교한 묘사력으로 왕실 초상화의 전통을 이어가며, 전통과 근대의 경계를 잇는 기록을 남겼다.

1관의 하이라이트는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다. 이중섭은 전쟁과 피난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라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없는 살림 속에서도 은박지까지 재료로 삼으며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에는 그의 치열한 삶과 다정한 마음이 함께깃들어 있다. 물고기와 게는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넋을 기리기 위해 많아 그렸다’고 한다.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 일상과 다정

2관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방에는 세 작가의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다. “내가 보았던 것만 그린다”는 장욱진, “내가 본 것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고민한 이응노, “나는 많은 것을 보겠다”는 의지를 지녔던 천경자의 그림이다. 이들은 ‘본 것’에 대한 인식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장욱진은 “나는 심플하다”는 말처럼 작은 집과 아이들, 닭과 나무를 순수하게 담아냈다. 오늘날 주목받는 ‘무해함’이 그의 작품 안에 있었다. 특히 손바닥만 한 화폭에 생명을 그려낸 건 유독 와 달았다. 숨을 가득 머금은 불그스름한 불과 알사탕 같은 어머니의 얼굴이 귀엽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 시대에 생명을 지켰다는 건 가장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응노는 개인사의 질곡이 깊은 작가다. 그만큼 개인의 선이 모여 우주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돋보인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밥풀과 간장으로 그림을 그리며 예술을 멈추지 않았다. 천경자는 도슨트 투어에서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활발했던 작가이기도 하다. 동양의 물감으로 서양을 그려냈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벽을 넘어 이어지는 박래현 작가의 공간에서는 ‘50년대 최초의 워킹맘’이라는 설명에 놀라게 된다. <새벽>은 주부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옆에 걸린 <정물-건어>에서는 매일 마주하던 부엌 풍경과 건어물을 서양화 기법으로 과감히 풀어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래동화책도 소개된다. 박수근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삽화를 직접 그렸고, 그의 아내가 글을 썼다. 서민의 일상을 거친 질감으로 담아낸 작품 세계와는 또 다른, 아이를 위한 다정함이 깃든 작품이었다.



이중섭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장욱진 <생명>



박래현 <새벽>

기이한 경험으로 다가온 풍경

특히 2관에 전시된 오지호 작가의 1970년작 <풍경>은 잊기 어려운 경험을 안겼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안 약 3초간의 적막이 찾아왔고, 마치 그림 속 산길을 직접 걷는 듯했다. 과연 이게 무엇인가 싶어 다음 날 다시 찾았지만 같은 경험이 반복됐다. 나폴리탄 괴담처럼 기이한 체험이었다.

혼자만의 느낌인지 궁금해 관찰해보니,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어떤 이는 세 번이나 다시 돌아왔고, 두 명은 휴대전화로 작품을 담았다. 사진으로 보면 평범한 풍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 마주하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오지호는 15세에 아버지의 자결을 겪었고, 65세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 그래서일까. 단순한 풍경 너머로 영원의 감각이 전해졌다. ‘고독이란 부모 없는 어린이와 자식 없는 노인을 뜻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독립과 자주 정신을 지녔던 오지호에게 나라를 위한 헌신은 아버지를 향한 응시이자 고독의 해소였을지도 모른다. 삶을 견디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풍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작품이다.

고독과 다정이 공존하는 자리

거장들은 고독을 강요받던 시대에도 표현을 멈추지 않았다. 재료가 없어도 그림을 그렸다. 고독은 어떤 이에게는 냉소와 인색함이 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다정함과 성찰로 전환된다. 이번 전시의 거장들은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았다. 고독은 주어진 시련이지만, 그 안에서 다정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강인함이 주는 위로가 아이들의 삶에도 깊게 뿌리내리기를 바라게 된다.



오지호 <풍경>

다정한 마음,
고독한 영혼 :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

● 2025.8.23.(토)~
10.16.(목)
10:00~19:00
티켓 마감 18:00
월요일 휴무
성인 5,000원,
노원구민 3,000원
● 노원아트뮤지엄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 공연전시부
02 2289 3428

2025 노원달빛산책, 노원구 대표 가을 축제가 돌아왔다!

형형색색의 빛으로 그린 ‘모두의 달’, 당현천에서 만나다

어둠이 내려앉은 당현천. 형형색색의 빛이 주위를 밝힌다.

물 위로 일렁이는 빛의 고리와 조형물이 서로의 색을 비추며 노원의 밤을 새로운 감각으로 물들인다.

지금, 당현천을 수놓은 노원구 대표 가을 축제 2025 노원 달빛산책의 현장을 소개한다.

글. 사진. 김주영(노원아띠 기자단)

‘모두의 달’, 예술로 전해지는 이야기

매년 가을 당현천을 다채로운 빛으로 밝히는 노원구 대표 축제 <노원 달빛산책>이 시작되었다. 2025 노원 달빛산책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올해의 주제는 ‘모두의 달’이다. 하나의 달빛 아래에서 모두가 연결되고 공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는 총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 ‘우리를 비추는 모두의 달’은 자연·조화·상생을 주제로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호흡을 달빛의 시선으로 담았다. 두 번째 섹션 ‘함께 걷는 모두의 달’은 사회·다양성·공감에 주목해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전한다.

UXU Studio <인피니티 노원(무한노원)>

마지막 섹션 ‘내가 찾는 모두의 달’은 자아·지혜·신비를 중심으로 각자의 내면에 잠든 달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한다. 즉, ‘모두의 달’은 하나의 달이 아닌, 서로 다른 존재들의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수많은 달을 보여준다.



(위부터)

김상연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

윤체호 <월광응답(月光應答)>

장진의 <생태의 균형>



시민이 함께하는 달빛, ‘달빛투어’와 체험 프로그램

2025 노원 달빛산책의 또 다른 매력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축제 기간 운영되는 ‘달빛 투어’는 지역 주민이 도슨트로 참여해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차례 교육을 받은 이웃이 작품에 담긴 의미와 작가의 생각을 친근하게 전달하여 전시 관람에 흥미를 더한다.

달빛 투어는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진

함께 만든 ‘달빛’, 예술로 이어진 협업

올해 2025 노원 달빛산책에는 해외 작가, 지역 기반 작가, 공방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빛 조형,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섬세한 한지 등 각자의 테크닉과 개성을 살린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시민과의 협업 작품들은 올해 축제의 방향성과 공공예술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찬주 작가의 <불빛이 비추는 곳 (Where the Light Shines)>은 노원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문화예술분과 달빛팀’과 협업한 작품이다. 아이들의 글과 그림, 물건을 모아 만든 타임캡슐을 가로등 조형물 아래 설치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빛으로 드러냈다. 잊히기 쉬운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공동체의 빛 속에서 되살리며, 관람객들이 서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발빛(Footlight)>은 2025 노원 작가 공모 선정작으로, 성지현·정동균 작가가 노원 청년일삶센터의 은둔·고립 청년들과 함께 제작했다. 흙 위에 남긴 발자국과 메시지는 도자기로 구워져 LED 조명과 함께 당현천 산책로를 밝히며, 각자의 흔적과 이야기를 길 위에 남겼다.

<언젠가 너와 나(Someday You and I)>는 노원 작가 공모에 선정된 김연진 작가가 노원구종독관리통합지원센터 회원 및 가족과 협업해 제작한 작품이다. 유리로 만든 애벌레와 알 조형물은 변화를 향한 생명의 힘을 상징하며, 뜨거운 불 앞에서 빛어낸 수많은 알이 밤하늘 아래 소망의 빛으로 반짝인다.

마지막으로 <쉼터: 스피커(Shelter: Speaker)>는 가제트공방이 노원구 상상이룸센터 중·고등학생들과 밴드 ‘네모난구’와 함께 완성했다. 청소년들의 바람과 소망은 음악으로, 공방이 함께한 목공 작업은 스피커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공공미술 빛조각축제 <2025 노원달빛산책>

- 2025.10.17.(금)~11.16.(일) 17:00~22:00 누구나 관람 가능
- 당현천 일원 상계역/수학문화관~종계역/당현1교 구간
- 축제기획단 02 2289 3466

이래서 다들 도깨비시장 가는구나?

추석 전 미리 다녀옴!
공릉동도깨비시장 100배 즐기기



가장 마지막으로 시장에 가본 건 언제인가. 필자는 지난 가을 이후 약 1년 만에 시장을 다녀왔다. 상생지원금도 사용해보고 추석맞이 음식 구경도 할 요량이었다. 가볼 만하다고 소문이 났는지, 넉 달 전에는 유튜브 채널 '홍석천이원일'에서도 다녀갔다. 1939년부터 운영되어 2025년 현재까지 활발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공릉동도깨비시장! 추석을 기다리며, 오늘은 도깨비 없는 도깨비시장을 구경하러 나섰다.

글. 사진. 이미령(노원아띠 PM)

경춘선숲길 산책로에 있는 시장 후문 출입구로 들어선다.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어지는 길 전체가 시장이다. 끝까지 구경하고 나면 태릉입구역과 공릉역 사이 대로변에 닿는다. 그쪽이 정문이다. 평일 오후임에도 시장은 한산하지 않다. 좌우로 빈 곳 없이 매장이 늘어서서 손님들을 반긴다. 고개를 들자 길 아래쪽까지 아크릴 아케이드가 이어져 있다. 높직하게 설치된 덕분에 답답하지 않다. 날씨가 웃으면 비를 피할 수 있고, 햇살 밝은 날에는 햇볕이 새어 들어온다.

시장 후문의 지도에 따르면 도깨비시장은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계획적인 장보기도 좋지만, 시장 구경의 즐거움은 역시 즉흥성에 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눈길이 닿는 대로 걸어본다. 반찬 가게, 카페를 지나자 자글자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난다. 단돈 2천 원,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배추전을 보며 군침을 삼킨다. 매장 앞 좌판에는 상추와 아욱, 깻순 등 제철 채소가 풍성하게 진열돼 있다. 반찬가게에서는 명절 분위기가 벌써 물씬 풍긴다. 떡갈비, 김치전, 삼색전은 물론 모듬나물과 코다리찜도 손님들을 유혹한다.

막걸리로 발효한 옥수수 술빵, 국내산 햇옥수수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춘선숲길 인근 빵집인 라라브레드 옥수수로 유명하다는 이 집은, 트럭에서도 옥수수를 판매한다. 맛이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문구가 당당히 내걸려 있다. 술빵의 노란 색깔이 먹음직스러워 덥석 구매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맛본 옥수수 술빵은 달지 않은데다 여러 가지 견과류가 뿐

려져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에는 정상 영업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방문해보자.

<도깨비 정육점>은 유명한 프로그램의 촬영 경력을 자랑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각종 고기 판매는 물론이고 매장 내부에서 냉면 등도 판매하고 있다. 고기는 그을음 없이 1차 그릴에 초벌구이가 가능하다. 고기도 고기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이곳에 내걸린 사장님의 손 글씨.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다. “가까운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마음이라는 것은 좁히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고 넓히면 온 우주를 품어도 남는다.”와 같이 한 번쯤 곱씹어볼 문장들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인생은 인간이 철들 만큼 길지 않다.”는 것. 사장님을 꼭 뵙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날은 봉사 활동을 가셨다는 안내를 받고 다음을 기약해보았다.

곱창 김 판매 부스 또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전남 신안에서 공수해 온 김은 수제로 조미하여 판매한다. 곱창 김을 직접 조미하고 절단하고 포장하는 전 과정을 구경할 수 있다. 또한 황금 김 선물 세트도 마련되어 있다. 추석을 맞아 직원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며, 지나가던 사장님이 명함을 받아 들었다. 대량 선물 세트인 경우 미리 주문해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다. 박스를 포함한 선물 세트는 무려 만 원 후반부터 구매할 수 있다. 물가가 치솟는 요즘 보기 드문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저렴하지만 정성이 깃든 선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구성일 터. 곱창 김은 낱개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3,200원 할인가에 판매 중이다. 시식용 김을 맛보고 난 후, 바삭한 식감과 짜지 않은 맛에 반해 2개를 구매했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방수 앞치마를 두른 청년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선풍기와 함께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전 모기장 속에는 생선이 말라간다. 날벌레를 쫓아내기 위한 아이디어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발걸음을 멈춘다. 훌리듯 그 모습을 구경하는 동안 피로감이 사라졌다. 이외에도 휴식을 위한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걷다 지치면 쉬어가기 좋다. 시장 내에는 로또 복권 판매점도 있어서 구경의 재미를 더한다.



공릉동도깨비시장

- 서울 노원구 동일로180길 53
- <https://dokkaebimarket.wixsite.com/my-site>
- 02 976 4143

가을 타는 당신을 위한 영화 다섯 편

옷깃에 스며드는 쌀쌀함을 달래줄 스크린의 온기

차가운 공기가 옷깃에 스며드는 요즘, 마음도 함께 얕아진 듯하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괜스레 쓸쓸해지고, 사소한 장면에도 눈시울이 젖곤 한다. 가을을 타는 이 계절, 영화는 때때로 우리 마음을 대신 말해주기도 한다. 오늘은 그런 가을의 감정과 맞닿은 다섯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글. 사진. 김주영(노원아띠 기자단)

미완의 계절이 떠오를 때 **귀를 기울이면** (1995)



<귀를 기울이면> 스틸컷 ©씨네21

가을 분위기 가득한 캠퍼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영화 <굿 월 헌팅>은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지만 마음의 상처로 세상과 거리를 둔 청년 월의 여정을 그린다.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그는 우연히 수학 문제를 풀어내며 주목을 받고, 램보 교수의 소개로 심리학자 손을 만나게 된다. 거칠고 불안정했던 월은 손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닫힌 마음을 열어간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손의 진심 어린 말은, 누구나 품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위로하는 듯 깊은 울림을 남긴다. <굿 월 헌팅>은 재능과 상처, 두려움과 가능성이 교차하는 청춘의 초상을 담아내며, 가을날의 쌀쌀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옹어리진 상처를 풀어내는 과정 **굿 월 헌팅** (1998)



<굿 월 헌팅> 스틸컷 ©미라맥스

아일랜드의 골목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원스>는 한때 꿈을 포기한 거리의 음악가와 체코에서 온 이민자 여인의 짧고도 강렬한 만남을 노래한다. 낡은 기타와 피아노로 만들어낸 멜로디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오래 남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끌리지만, 끝내 함께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음악은 덧없음 속에서 더욱 빛난다.

영화의 대표곡 <Falling Slowly>가 흐를 때, 관객은 음악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의 고백이자 기억의 기록임을 느낀다. 가을바람처럼 스쳐가지만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원스>가 전하는 낭만이다.

노래처럼 맴도는 어느 시절의 인연 **원스** (2007)



<원스> 스틸컷 ©네이버 영화

“라면 먹을래요?”라는 대사로 시작된 만남은, 겨울이 오기 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말과 함께 덧없이 저운다. 영화 <봄날은 간다>는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을 통해 사랑의 시작과 끝을 차분하게 기록한다. 음향기사 상우와 라디오 PD 은수의 연애는 뜨겁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계절의 변화처럼 서서히 식어가는 감정을 바라보는 영화는, 끝나감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쓸쓸함을 떠올리게 한다. 이별 앞에서 던지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은수의 물음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누구나 겪는 경험의 회한처럼 남는다. 단풍이 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의 어느 저녁, <봄날은 간다>는 사랑의 불가역성을 조용히 들려준다.

쌀쌀한 사랑의 끝 **봄날은 간다** (2001)



<봄날은 간다> 스틸컷 ©The Woman Times

먹먹한 쓸쓸함을 마주하고 싶을 때 **다가오는 것들** (2016)



<다가오는 것들> 스틸컷 ©티빙

미아 한센-러브 감독의 <다가오는 것들>은 프랑스 철학 강사 나탈리의 일상을 따라가며, 예기치 못한 변화와 상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편과의 이혼, 어머니의 죽음 등 삶의 터전의 흔들림은 그녀를 무너뜨릴 법도 하지만 나탈리는 끝내 절망에 잠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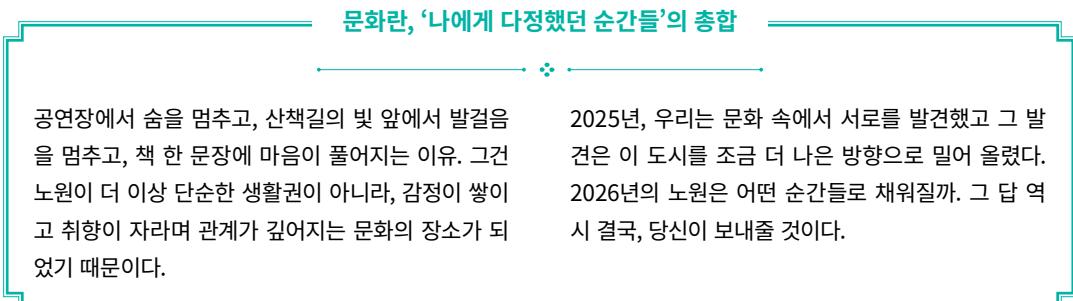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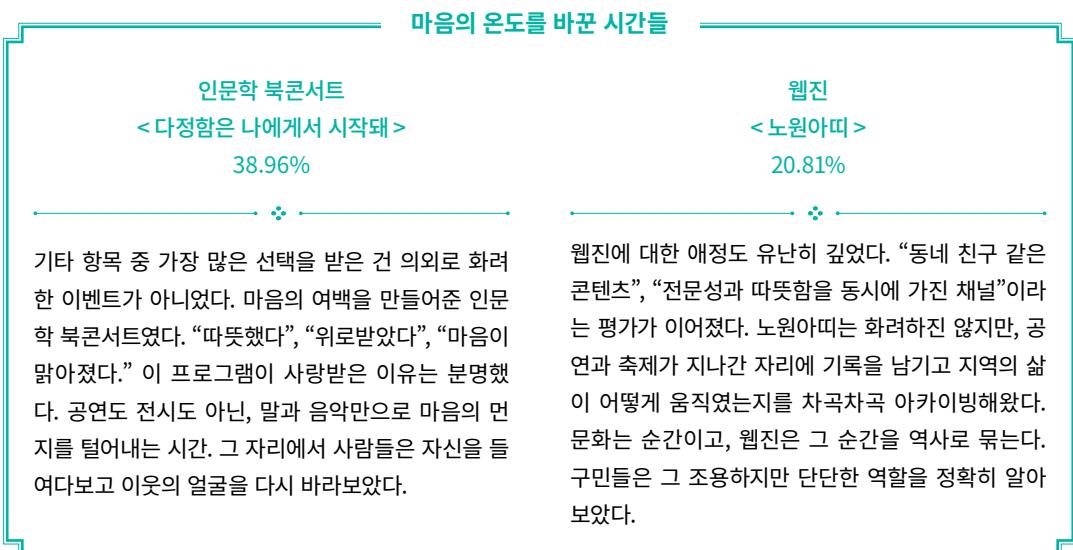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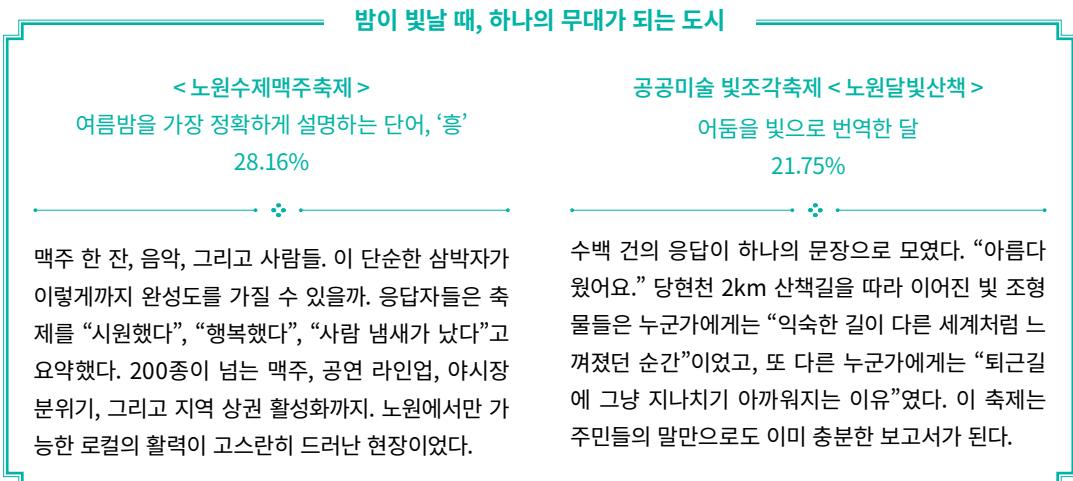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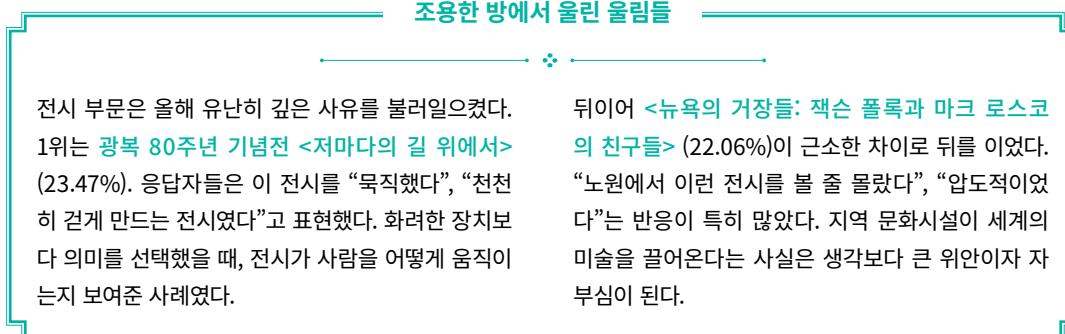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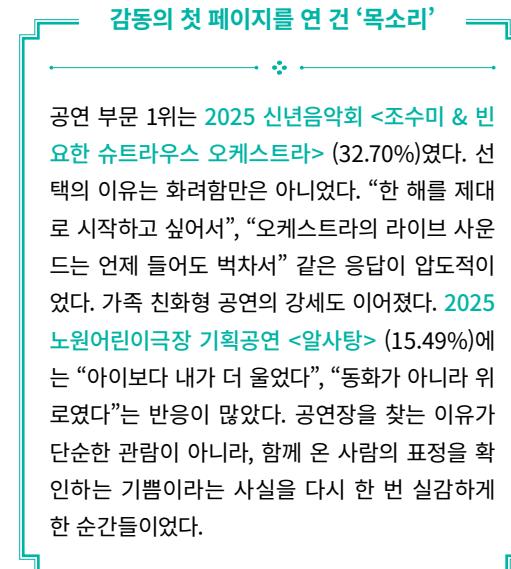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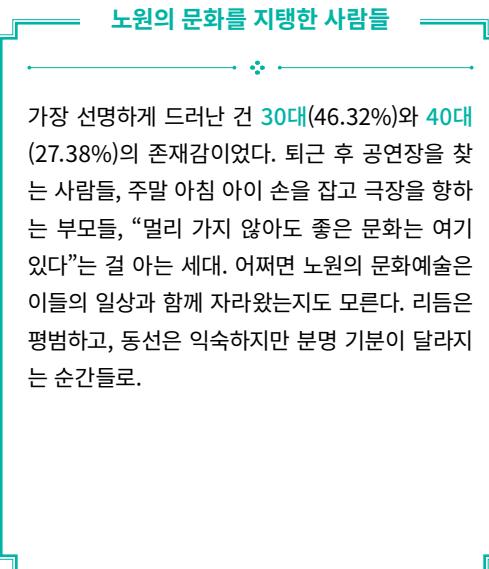
영화 속의 계절은 그녀의 마음처럼 흘러가며, 화려한 전환보다는 담백한 관찰로 이어지는 서사를 통해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가을의 쓸쓸함이 무겁게 다가올 때, 이 영화는 담담히 그 쓸쓸함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2025 노원, 무엇이 우리를 움직였을까?

Nowonfac Awards 2025

연말이 되면 늘 궁금해진다. “올해, 우리는 무엇에 감동했을까?” 누군가는 화려한 무대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조용한 산책길 위의 빛을 떠올린다. 또 어떤 이들은 책 한 권의 문장에 마음을 내려놓고, 웹진 한 편의 인터뷰에서 동네의 숨은 얼굴을 발견한다. 2025년, 724명이 보내온 응답은 이 질문에 가장 진솔한 답이었다. 수치는 때로 냉정하지만, 그 안의 이유는 언제나 따뜻하다. 올해 노원을 움직인 문화의 순간들을 이제 차분히 되짚어본다.

글. 노원문화재단 정책기획부



다정함은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노원의 문화는 당신으로부터 완성된다.

겨울날의 전래동화, 해동일(解凍日)

1월 29일, 해동일

글. 김지영(노원아띠 독자)

8년 전, 우리 부부는 오래된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다. 봄에 입주해 처음에는 몰랐지만, 겨울이 되자 집 안 여기저기에서 바깥바람이 비집고 들어왔다. 분명 실내인데도 보일러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코끝이 시려 두 손으로 코를 덮고 호오호오 입김을 불어야 했다. 어디서 이렇게 찬 공기가 들어오나 싶어 벽에 손을 대보니, 창문 틈새는 물론이고 콧구멍만 한 콘센트 구멍으로도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결혼하고 첫 겨울을 맞은 2018년, 그해 최저기온은 영하 17.8도였다. 욕실 벽에는 얼음이 생겼다. 이 정도 한파에는 동파를 막기 위해 자기 전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그런 생활상식조차 모르는 철부지 신혼부부였다. 결국 밤사이 수도도, 변기도, 욕실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곳이 죄다 얼어버렸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드라이기로 바람을 쏴아도 소용이 없었다. 배관공을 부르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그저 날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겨울날의
전래동화

(解凍日) 해동일

우리는 생존을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불일은 최대한 참았다가 해결하되, 작은 불일은 변기에 직접 물을 부어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큰 불일은 근처 전철역이나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다. “젊은 사람이 가지가지 하네!” 남편은 큰 불일을 해결하려 집 앞 목욕탕 건물로 뛰어갔는데, 화장실을 빌리는 주제에 휴지까지 달라고 했다가 관리인에게 핀잔을 들었다.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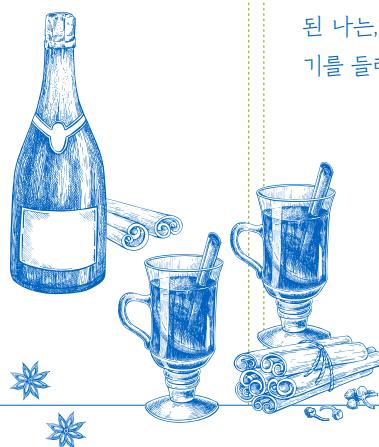
며칠쯤 지났을까.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건물 주인이 연락을 해왔다. 곧 열선과 이런저런 장비를 챙겨 직접 집집마다 돌며 연 수도를 녹여주었다.

“와!!!”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과 시원하게 내려가는 변기 물을 보며, 나는 서른 중반의 나이를 잊고 방정맞게 풀짝풀짝 뛰었다. 이제 더 이상 아랫배에 긴장감을 염은 채 전철역까지 뛰지 않아도 된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집 변기에 불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이렇게 기쁜 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남편과 둘만의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이런 날이야말로 기념일로 삼아 오래도록 기려야 한다며 벽에 걸린 달력을 집어 들고 표시를 했다. 1월 29일은 그렇게 ‘해동일(解凍日)’이 되었다.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한, 그런 기념일이다. 이듬해 겨울에 라디에이터를 들인 이후로는, 한파가 찾아와도 동파를 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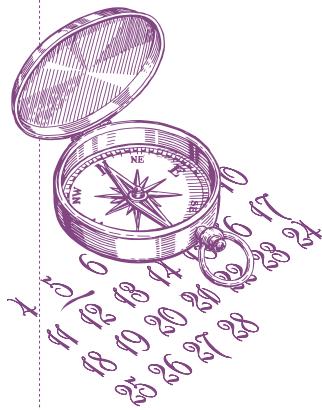
단열이 잘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뒤, 그때의 일은 까마득한 추억이 되었다. 콘센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일도 없고, 창문만 잘 닫아두면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크게 춥지 않다. 이제 일곱 살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추운 겨울날이 오면 아이에게 마치 전래동화처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궤도에서 이탈한 딸을 부모는 사랑으로 품어주었다

5월 5일, 퇴사 고백의 날

글. 장진영(노원아띠 독자)



NOWON ART MAGAZINE 2025

세계여행을 떠난 부모님이 돌아왔다. 무려 일 년 반 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수십 년간 지구별 여행을 꿈꾸던 부모님은 지난해 아빠의 정년퇴임을 기점으로 베킷리스트를 실천에 옮겼다. 세계 곳곳을 걸어 다니며 대 자연을 만끽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부모님의 소식은 가족 단톡방을 통해 공유됐다. 부모의 무게감을 덜어낸 채 세상을 구경하는 부모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밝은 희망을 가득 채워 인생 2막을 시작한 부모님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창 일할 나이에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사실을, 퇴사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으로 가득했던 부모님의 여행이 걱정과 염려로 덮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가우디의 대성당 앞에서 감탄하고, 우연히 들른 사원에서 평온함을 느끼던 부모님의 여행길에 나의 퇴사 소식이 끼어든다면, 모든 풍경은 방황하는 자녀의 재취업을 빌기 위한 장소로 변할 게 분명했다. 부모님의 여행길이 순례길로 바뀌는 상황만은 막고 싶었다. 그렇게 나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여행 기분을 펑계 삼아 퇴사 사실은 당분간 알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부모님의 귀국 일정이 반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여행이 짧아진 아쉬움보다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더 커 보였다. 나 역시 반가움은 마찬가지였다.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돌아온 부모님을 보며 안도했고, 중년의 나이에도 뚜벅이 여행을 감행한 부모님의 모습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했다. 동시에 불편한 진실을 꺼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부모는

NOWON ART MAGAZINE 2025



부모는 사랑으로 품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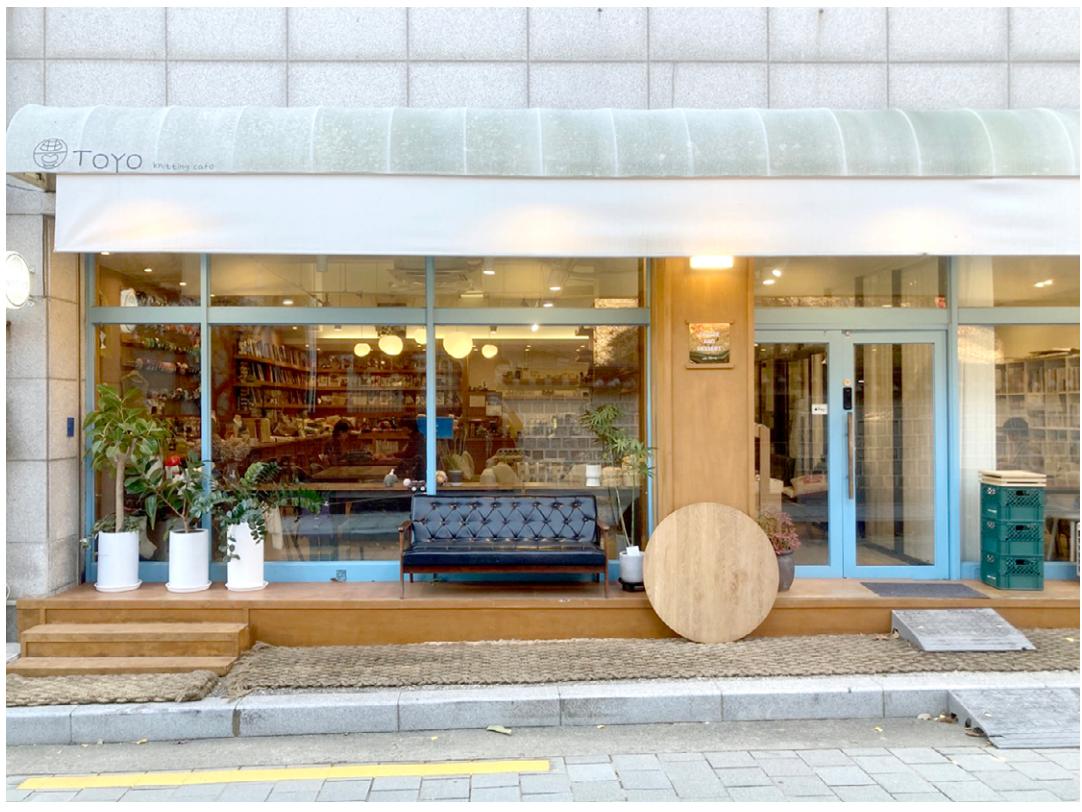
고백할 날을 정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쳐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의 시작점, 그날을 나의 '퇴사 고백일'로 삼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카네이션을 사고, 정갈한 음식이 준비된 식사 자리에 앉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붓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미뤄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에서 발표하듯 설명할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써서 전달할지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마주 앉아 퇴사를 결심한 이유와 과정, 퇴사 이후의 생활,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목표를 차분히 이야기했다. 말을 마친 뒤 부모님의 표정을 살폈다. 놀라지는 않을지, 걱정과 실망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며 잠깐의 침묵을 기다렸다.

옅은 미소. 두 분의 얼굴에서 발견한 표정이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직장인 연차로는 쉽지 않은 2주간의 여행을 떠났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굳이 묻지는 않기로 했다고 했다. 대신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나의 선택과 퇴사 후 보낸 시간을 믿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믿겠다는 부모님의 답에, 나는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렇게 퇴사 고백의 시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성숙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뿐듯함도 잠시, 아빠의 깜짝 이벤트에 놀려 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하얀색, 분홍색, 하늘색 꽃이 한 아름 담긴 듯한 솜사탕을 내게 건넸다. 함박 웃음을 지으며 현관에서 있던 아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코끝이 시큰해졌다. 사회인으로서 제 몫을 해내야 할 나아이에 멈춰 서 있는 나의 미성숙함이 부모님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아 죄송했고, 여전히 꿈 많고 고민 많은 나를 믿고 응원해 주는 부모님의 사랑이 깊이 감사했다.

사랑을 듬뿍 담아 솜사탕을 안겨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무엇을 하든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 덕분에 훌로 맴도는 것 같던 불안은 사라졌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갈 용기가 생겼다. 정상 궤도를 다시 찾아 항해하게 될 머지않은 미래에는, 부모님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딸이 되고 싶다. 그때는 두 분의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믿고 응원하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카페 토요 외관

겨울을 함께 할 뜨개 친구, 카페 ‘TOYO’에서 만들어 가요

머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잉어빵과 호떡만큼 끌어당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당신을 추위로부터 포근하게 감싸줄 것만 같은
뜨개질을 떠올려본 적 있는가?
포근한 털 뭉치를 엮으며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곳이 있다.
이른바 ‘뜨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따뜻한 차와 뜨개질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장소, 카페 TOYO를 찾았다.

글. 박주아(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박주아, 이은전



(위) 카페 토요 작품들
(아래) 카페 토요 수업 모습



—— 공간이 주는 다정함, 따뜻함은 우리를 초대하고 더 머물고 싶게 만든다. 아마도 이러한 힘으로 탄생한 말이 뜨개 친구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온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차갑고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피해 뜨개질을 하며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면 어떨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뜨개 친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 오늘은 노원구의 이웃 동네, 도봉구를 찾았다. 방학동 성당과 학마을 도서관 인근에 있는 카페 TOYO는 뜨개를 사랑하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정갈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풍기는 이곳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일까? 를 상상하게 만든다.

처음 이곳에 들어설 때, 마치 새로운 재미난 세계에 초대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간을 빼곡하게 뒤덮고 있는 색색의 털 뭉치들, 나무로 멋을 낸 공간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뜨개질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거기에 더해 달콤한 디저트 냄새는 추위로 경직되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내기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20대의 연인부터 70대의 노인들까지, 이 공간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중학생 2학년 때 뜨개질을 처음 접한 뒤로 매력에 빠져 시작하게 된 뜨개질이 지금의 삶이 되었다는 이은전 사장님. 그는 많은 이들에게 뜨개질의 매력을 아낌없이 알려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뜨개질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 카페의 이름 ‘TOYO’는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따온 말이다. 지금도 일본으로 가서 직접 뜨개 수업을 배우고 있는 이은전 사장님은 이곳이 편안한 공간은 물론, 수평적인 느낌을 가진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다.

카페 곳곳에는 사장님의 작품들과 뜨개질 관련 서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관련 서적을 모은 만큼 희소한 서적들이 많다. 또 뜨개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도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반드시 수업을 들지 않더라도 뜨개질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뜨개질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질이 막힐 때면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수업 시간표는 카페에 문의해 알 수 있다.

수업이 끝난 뒤 보통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보다는 카페 공간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질한다고 하니, 이 공간에 머무는 이들의 뜨개 사랑의 온도로 이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카페 토요 내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노원천문우주과학관 태양관측실 탐방기

‘절대 태양을 보지 마세요.’ 망원경에 쓰인 경고 문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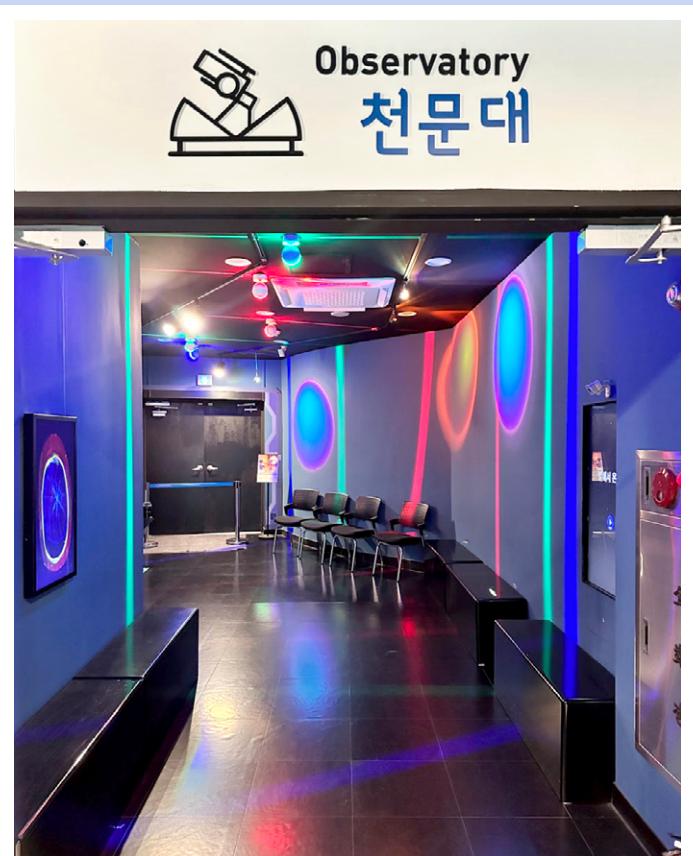
금지당하면 더 해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닐까?

별 중의 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태양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다니 아쉬움이 컸다.

반갑게도 노원에는 그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구름 낀 어느 날,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을 찾아 태양 관측에 나섰다.

글. 사진. 임주연(노원아띠 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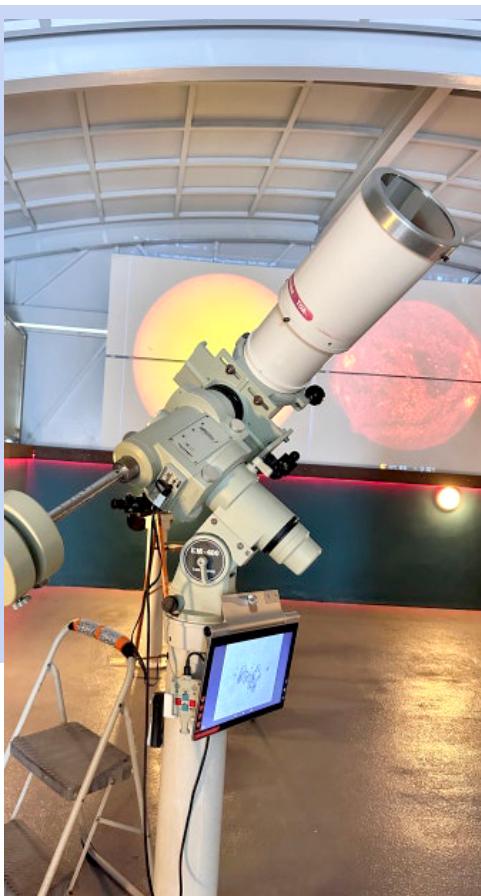


태양을 직시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안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원경 필터 없이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타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태양을 관측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동네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는 단돈 2,000원으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순간을 마주 할 수 있다.

장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셈이다. 흥미와 지글거리는 태양을 직접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순수한 에너지이자 가장 밝은 빛을 마주 한다는 생각에 경건한 마음마저 들었다.

구경할 것이 많아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다. 한 번 방문한다면 관람 시간을 2시간 정도 넉넉히 잡는 것이 좋겠다.



푸른 하늘이 드러나자 설렘이 커졌지만, 안내자는 구름이 낀 날에는 태양 관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셀로판지가 부착된 관측용 안경을 쓰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의 태양은 어둠 속에 떠 있는 작은 주황색 점처럼 보였다. 흥미나 흑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태양의 강렬한 열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구름은 끝내 태양을 가린 채 물러나지 않았다. 망원경 너머에는 잿빛 구름만이 가득했다. 구름이 없는 날이라면 태양 둘레에서 이글거리는 열기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한다.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은 야간 관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들의 이름을 배우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달 표면의 웅덩이도 관찰할 수 있다.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할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의미 있는 공간이다.



먼저 제1전시관에 들어섰다. 스크린에 질문이 떴다. ‘이 우주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관습처럼 떠오른 답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였다. 순간 나의 삶이 멀어지는 듯했고, 우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우주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 우주는 아무것도 없던 암흑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됐다. 최초의 별은 수소와 헬륨 기체가 뭉쳐 만들어졌고,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셈이다.

별의 탄생에 감탄한 뒤 각종 우주 체험 장비를 둘러보고 나니 태양을 볼 시간이 되었다. 4층 태양관측실에서 담당자를 만났다.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관측실 밖으로 나가자 담당자가 천문대 지붕을 열었다.

노원천문우주과학관

-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5길 13
- 화~일요일 09:30~17:30
휴게시간 12:00~13:00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5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입장 무료
- <https://nowoncosmos.or.kr>
- 02 971 6232

제철 동네를 걷다: 기록이 삶을 바꾸는 순간

아무거나 프로젝트 차희은 인터뷰

동네를 여행하듯 걷고, 스쳐 지나가던 초록과 돌멩이, 버스 창밖 풍경을 모아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노원에서 20여 년을 살아온 차희은은

2025 노원문화재단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제철 동네 산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상의 감각을 믿는 한 사람의 기록이 어떻게 동네의 얼굴을 바꾸는지, 천천히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다.

글. 박미경(노원아띠 기자단) 사진. 차희은

차희은



제약이 없어서 시작된 용기

아무거나 프로젝트 공고에서 ‘주제·콘셉트 제한 없음’이라는 문장을 본 순간, 차희은은 곧바로 지원서를 열었다. 전공도, 포트폴리오도 요구하지 않는 드문 공모였다. 오래 살아 더 애恸해진 노원을 무대로, 스스로 해보고 싶던 기록 실험을 작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노원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살아온 그는 익숙한 거리와 풍경 속에서 ‘다시 보기’의 욕구를 품고 있었다. “요즘 들어 이 동네가 더 좋아졌어요.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풍경을 기록으로 남겨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개인 프로젝트가 ‘제철 동네 산책 프로젝트’다.

“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가볍게 시도하기에 딱 좋았어요. 그동안 생각만 했던 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작은 것들을 포착하는 시선

그의 산책에는 명확한 목적이 없다. 오히려 그 ‘무목적성’이 핵심이다. 아무 버스나 타고 낯선 곳에 내려 그냥 걷는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순간이 많아요. 그때 느꼈어요.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지는구나.”

그는 하루에 한 단어를 정해 산책을 시작한다. ‘돌멩이’, ‘초록’, ‘그늘’ 같은 단어들이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보이는 것들을 모으고, 짧은 문장으로 기록한다. 그렇게 쌓인 조각들이 그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채운다. ‘전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 작업에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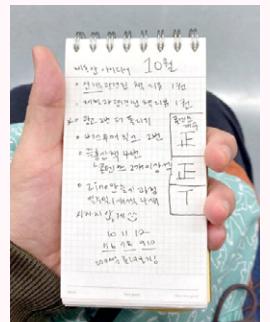


‘돌멩이 수집’, ‘초록 수집’ 등
산책 중 촬영된 이미지
(자연의 색감이나 질감 중심)

기록은 쌓이고, 동력은 거기서 온다

혼자 하는 창작은 외롭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 “마감이 있으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동료가 있었다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줬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를 다시 산책길로 이끄는 건 ‘쌓이는 기록’의 힘이다.

사진과 문장이 늘어갈수록, 그가 걸어온 시간이 눈앞에 보인다. “예전 게시물을 보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싶어요.” 기록은 결과물이자,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간다.



아이디어 노트

온라인 zine, 초대 산책 모임

기록의 결과는 인스타그램 @dongnae.walks_project에서 만날 수 있다. ‘동네’와 ‘워크’를 결합한 이름처럼, 그의 피드는 동네를 걷는 감각으로 채워져 있다. 11월에는 그간의 사진과 글을 엮은 온라인 zine 형태의 기록집을 만들 예정이다.

종이책 대신 디지털로 엮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시도다. 또한 그동안 걸었던 코스를 중심으로 ‘초대 산책’이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산책 모임도 준비 중이다.

“많은 사람은 부담스럽고,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스를 같이 걸어보고 싶어요.”



제철동네의 풍경이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혼자에서 함께로, 프로젝트가 남긴 것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걷는 속도’다. 예전보다 더 천천히, 더 자주 멈추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바람 소리를 듣거나 나무 그림자를 찍는 일상이 생겼다. “기록을 남기기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게 많았어요. 지금은 일상적으로 걸을 때도 더 유심히 보게 돼요.”

그는 이 여정을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엔 누군가와 같이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혼자 하는 게 자유롭지만 피드백이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서로의 과정을 보여주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프로젝트, 왜 의미가 있나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노원문화재단이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에게 ‘실험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20~39세 청년 누구나 주제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약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5팀 안팎을 선정한다.

차희은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열린 입구’라고 표현한다. “다른 지원 사업은 자격 요건이 많아요. 전공, 포트폴리오, 경력 같은 것들이요.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그런 벽이 없어요. 저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전공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요즘 다들 조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라도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머물고 싶은지 알게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작게 시작하면 돼요.”

그의 말처럼 전환은 멀리 있지 않다. 한 걸음의 산책,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록이 쌓여 어느새 동네를 새롭게 비춘다. 그것이 바로 ‘아무거나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소중한 풍경이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희망을 알려주는 북극성을 노원에서 관측하기

무더위가 깨이길 그토록 원했던 여름 끝, 기다렸던 가을 소식보다 반가운 알림이 울렸다.

온라인 서점에서 발송한 신간 일람 문자였다.

문자 속에는 낯익은 정승진 작가의 『아말과 사마: 끝까지 널 찾을 거야』 출간 소식이 담겨있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목적지를 잘 찾아가고 있을까.

목적지를 잊거나 찾아야 할 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옛 선인들은 길을 잊었을 때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찾았는데, 2025년 우리에게도 북극성은 보일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 조급함이 커지는 가을밤, 오늘은 노원에서 북극성을 함께 찾아볼까요?

글. 사진. 이현주(문화PD)





정승진 <아말과 사마>
이지북, 2025

『아말과 사마: 끝까지 널 찾을 거야』의 '아말'과 '사마'는 두 주인공의 이름이다. 동화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한 독서였는데, 표지 첫인상은 '불안'이었다. 히잡을 두른 앗된 여자아이 '사마'와 검은 고양이 '아말'이 만나지 못한 채 엊갈려 반대 방향으로 뛰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전쟁과 박해로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소녀 사마가 유일한 가족인 고양이 아말과 함께 낯선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야기다. 그러나 끝일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웬지 모를 자책감도 밀려왔다.

작년 제주도 난민 관련 기사를 떠올리면 난민 증가, 지역 내 수용을 둘러싼 찬반, 각 입장의 노력, 법적 쟁점이 뒤엉켜 있었다. 난민을 직접 보거나 겪은 일은 없지만, 기억 속 기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의 자책감을 불러온 듯하다.

사마의 수용소 친구가 한 말, "길이 끝나자 여행이 시작되었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 속 숙제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길이 끝나 새 여행을 시작해야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무사히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여행에서 길을 잊으면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옛날처럼 북극성 하나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다른 의미의 북극성이 필요할 것이다. 사마는 아말의 북극성이었고, 아말은 사마의 북극성이었고, 주인공을 도운 많은 사람이 또 주인공의 북극성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밝히며 길을 찾게 돋고, 가야 할 방향이 되는 그 북극성 말이다.

오늘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나를 밝게 비춰주는 북극성을 찾아보자.

적재의 노래, "별 보러 가자"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출래?

살다 보면 여러 관계가 생긴다. 나를 이끌어주는 관계, 내가 이끌어 주는 관계, 혹은 같은 방향을 나란히 걷는 관계다. 인생의 북극성은 그런 관계 속에서 밝게 빛나는지도 모른다. 추억이나 우정, 사랑, 간혹 깊은 상실의 순간도 북극성 같은 존재로 인해 더 빛나거나 덜 힘들어진다. 각자의 관계에 충실히 서로가 북극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가을의 가장 큰 수확이 될지도 모른다. 유명 배우 박보검이 불러 다시 역주행한 곡, <별 보러 가자>. 노래 한 소절 듣고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천문대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09:3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화요일 휴관
- <https://science.seoul.go.kr>
- 02 970 4500

서울시립과학관: 별이라는 희망을 만나는 곳

서울시립과학관 천문대 BOOT:
별과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일상의 과학을 실현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시동 건다.

노원구 하계동 볏골에 위치한 서울시립과학관의 천문대는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두 개의 관측 둑이 조개껍데기처럼 180도로 개방되며,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별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까이 있지만 잘 몰라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려 볼 것을 권한다.

천문대 BOOT 외에도 총마다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과학 관련 유명 인사들의 강의도 열린다. 취재차 방문한 날에는 '우주먼지' 지웅배 님의 강의가 진행 중이어서 운 좋게 천문학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관람 중간과 끝난 뒤 주변 경관까지 천천히 둘러보면 사계절이 아름답게 바뀌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오늘은 '해' 보러 서울시립과학관으로 갈까?

관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승진 작가의 『아말과 사마』가 다시 떠올랐다. 작품 속 사마와 친구들은 "도움을 줄 때는 받는 거야"라며 서로를 지켜주었다. 각자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아픔을 아는 만큼 서로에게 북극성이 되어주었다.

북극성은 하늘에서 길을 잊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러나 땅 위를 걷는 우리에게도 북극성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북극성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길을 잊은 누군가에게 내가 북극성이 될 수도 있다.

넉넉한 가을이다.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보고, 내가 또 어느 누군가의 북극성이 되어줄 수 있을지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다.

노원아띠 기자단의 고백, “우리가 노원에 빠진 이유는요...”

2025 노원아띠를 만든 사람들

봄부터 겨울까지 이어져 온 2025년 노원아띠 기자단 활동이 막을 내렸다.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과 동네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워준

2025 노원아띠 기자단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자.

thank you



임주연 기자



박주아 기자



박미경 기자

노원에서 사는 동안 꼭 한 번은 해볼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노원문화재단 덕분에 달마다 풍성하게 아이와 추억을 쌓았네요. 시간이 된다면 한 해 더하고 싶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해 더욱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은 인생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구석에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우리 마을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져요! 애정이 생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강혜빈 기자



김주영 기자



이미령 PM

노원아띠 기자단 활동은 제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동네에서 시작된 글쓰기였지만, 평소에는 관심 두지 않았던 장소나 사람, 그리고 일상까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노원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조금 더 정직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하게 되어 노원을 떠나게 되었지만, 기자단 활동을 하며 이 동네를 천천히 알아가고, 소중한 마음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이 앞으로도 일상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박빛나리 담당자

노원아띠 기자단 활동을 하며, 노원구의 전시와 문화 공간을 직접 찾아보고 기록하는 경험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옮기면서,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노원구의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결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 기사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즐거움을 얻는지를 좀 더 섬세한 눈으로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며 남긴 기록과 시선들이 노원아띠 독자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노원아띠와 사계절을 함께 보냈어요. 그 덕분에 올해는 적적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홀로 글을 쓰던 저에게 노원아띠에서의 경험은 색다른 것었습니다. 쑥스러운 취재를 하면서, 기자단 여러분과 열띠게 회의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도통 써지지 않는 기사와 씨름하면서 내내 즐거웠어요. 잘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날 무렵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읽는 여러분께도 '연결되는 기분'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내내 궁금했습니다. 우리들의 글 한 줄, 사진 한 장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다정한 추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곧 또 만나요.

돌아보면, 아띠는 재단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노원의 문화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관찰하는 일에 가까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난 숨은 주역들, 인터뷰에서 들은 작지만 진심 어린 말들, 주민들의 참여로 빛났던 순간들. 우리는 그 모든 온도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 역할 덕분에 매달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마지막 호는 발행 직전까지 몇 번을 더 들여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대한 미련인 걸까요?(웃음) 이 글을 통해 아띠를 읽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행처 (재)노원문화재단

발행인 강원재

기획·편집 부장 이종현, 담당 박빛나리, PM 이미령

노원아띠 기자단 강혜빈, 김주영, 박미경, 박주아, 임주연

디자인 프로젝트531

홈페이지 nowonarts.kr

주소 017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

전화 02 2289 3400

<노원아띠>는 노원구 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식을 담는 월간 웹진입니다.

<노원아띠>에 게재된 글은 노원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노원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